

# 사목적 제언을 위한 신종교 운동 에스 탈퇴자들의 탈퇴 후 경험과 회복 과정에 대한 근거 이론 연구

오 창 호

(신부, 서강대학교 박사과정, 제1저자)

이 규 성

(신부,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교신저자)

## 목 차

I. 들어가는 말

III. 연구 방법

II. 종교적(혹은 영성적) 문제에  
대한 진단 문제

IV. 연구 결과 분석

V. 나가는 말: 논의 및 사목적 제언

## 국문 초록

본고의 목적은 현재 신종교 운동 중 가장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에스’에서 탈퇴한 탈퇴자들의 회복을 위한 사목적 제언을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전 연구 검토를 하였는데, 대다수의 사전 연구들이 ‘세뇌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본 연구는 ‘세뇌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하여 대안적인 관점으로 ‘종교적 망상’을 제안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스트라우스-코빈의 근거 이론의 분석틀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본고의

\* 본고는 2023년도 광주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논문임.

목적이 구체적인 사목 돌봄을 위한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연구 참여자 9명의 1:1 심층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자료를 수집·분석한 결과 총 176개의 개념과 48개의 하위 범주, 그리고 15개의 범주를 발견하였다. 15개의 범주 중 중심 현상은 ‘삶의 총체적 파괴’와 ‘종교적 망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나타났는데, ‘젓터미 위에서 승화된 새로운 일상을 건설해 나가기’ 유형에 있어서 ‘퇴보형’, ‘고뇌형’, ‘현실적응형’, ‘초월형’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고는 결론에서 이들이 자기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과 하느님과의 관계 회복과 일치로 나아가는 여정을 교회가 사목적으로 돌보는 것에 있어서, ‘세뇌 이론’이나 ‘종교 중독 이론’이 아닌 ‘종교적 망상’을 바탕으로 한 개인들에 대한 사례 개념화가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중요 지지 집단인 가족과 함께 신앙적, 관계적, 사회 재적응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주어야 함을 말하였다. 나아가 가톨릭 교회는 신종교 운동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목적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양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이것을 통해 자신의 사목적 부족함을 반성해 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본고의 한계로서 가족들의 도움이 아닌 다양한 이유로 탈퇴한 이들, 특히 2세대들에게는 본 연구의 결과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과 다른 신종교 운동 탈퇴자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본고는 사목뿐 아니라 실천적 신학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신종교 운동 에스 탈퇴자 회복 방안, 세뇌 이론, 종교적 망상, 근거 이론, 새터 건설 유형

## I. 들어가는 말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던 세 모녀가 생활고로 고생하다가 방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동반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소위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이 발생한 뒤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논란과 법안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결국 2014년 12월 ‘송파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

된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 사고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sup>1)</sup> 교회에도 ‘사목 사각지대’가 있다. 바로 신종교 운동으로 인한 피해자들이다. 이들은 한 개인의 삶뿐 아니라 한 집안을 파괴하고,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고통과 후유증을 겪고 있으나, 이들의 회복을 위한 교회의 사목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국내 선행 연구들이 있다.<sup>2)</sup> 대부분의 연구들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세뇌 이론’을 전제하고 있으며, ‘근거 이론’을 바탕으로

- 1) 최정은·김윤영,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과 기초자치단체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45, 2022, 158-165 참조.
- 2) 국내 선행 연구가 바탕으로 하는 이론은 ‘세뇌 이론’이 대다수이며, 그 다음으로는 ‘종교 중독 이론’이다. 이 중 반신환은 ‘집단 사회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논문류는 다음을 참조: 강신유, 『에스 교도의 ‘이단경험과 탈퇴’ 과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평택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2010; 기함규, 『이단현상에 대한 종교심리학적 고찰: 에스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2008; 김명수, 『에스에서 탈퇴한 20대 청년들의 심리변화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이영숙, 『기독교청년의 기독교이단 탈퇴 경험연구』,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2021; 이정은, 『에스 신자들의 개종 요인에 관한 연구: 개종, 재개종 간증문에 나타난 교리적 내용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 이준민, 『보웬의 가족체계이론을 바탕으로 한 종교 중독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기독교대학원, 2018; 유애림, 『교회를 위협하는 기독교 이단에 대한 이해 및 목회상담적 대응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침례신학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정미숙, 『종교중독의 치료를 위한 기독교 상담』,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기독교상담대학원, 2011. 학술지류는 다음을 참조: 김정은·최영진, “집단 내 심리적 학대경험과 외상사건충격 간의 관계에서 외상화된 자기체계의 매개효과 검증: 학대적인 종교집단 탈퇴자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3/5, 2022, 181-201; 김원쟁, “이단신앙의 심리학”, 『대학과 선교』 12, 2007, 75-101; 반신환, “신흥종교집단의 개종과정과 상담”,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3/3, 2012, 153-174; 백소영·유영권, “신흥종교 이탈자를 위한 기독교상담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33/3, 2022, 139-172; 유연철, “기독교 이단 신흥종교에 경도(傾倒)된 성인진입기 세대의 종교중독 연구: 자기심리학 관점에서”, 『목회와 상담』 34, 2020, 171-205; 유영권, “사이버·이단 교주와 신도들의 심리이해: 목회상담적 제언”, 『신학과 실천』 13, 2007, 79-106; 유영권, “신흥종교에 빠진 내담자를 위한 상담 전략”,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3/1, 107-128; 유영권, “에스 이단 청년들의 적응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74, 2021, 359-386; 전우택, “신흥종교집단에 대한 정신의학적 이해”, 『精神病理學』 3/1, 1994, 23-33; 전형준, “이단자들의 심리이해와 목회상담학적 대책”, 『개혁논총』 30, 2014, 297-328; 정연득, “종교중독에 대한 목회신학적 대응: 정신분석학과 몸의 신학의 관점에서”, 『신학과 실천』 26/2, 2011, 45-78.

로 하는 연구는 강신유의 논문이 유일하나 사목적 돌봄의 관점에서 탈퇴 후 회복 과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본고는 교회의 ‘사목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현재 신종교 운동 중 가장 큰 위세를 떨치고 있는 에스 피해자들에 대한 사목적 돌봄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근거 이론을 토대로 신종교 운동 에스 피해자들의 회복 과정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여 사목 현장에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 새로운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 II. 종교적(혹은 영성적) 문제에 대한 진단 문제

### 1. 세뇌 이론

세뇌(洗腦, Brainwashing)라는 말은 과학, 정치 그리고 순전한 공상이 혼합되어 서투르게 이해될 수 있다. 본래 세뇌는 전체주의 정권이 반체제 인사들에 대해서 시행한 국가 관리 과정인데,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행동을 그들이 조작되고 있음을 느끼지 못한 채 매우 효과적으로 조종하는 것이다.<sup>3)</sup> 세뇌는 일반적으로 고의적 및 체계적으로 정신적 외상을 입혀 복종을 낳는 사상적 재사회화의 과정으로 여겨진다.<sup>4)</sup>

3) Kathleen Taylor, *Brainwashing: The Science of Thought Contro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7<sup>2</sup>, 3-7 참조.

4) 리프턴(Robert Jay Lifton)에 의하면, 세뇌에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 하나는 과거와 현재의 ‘악’에 대한 폭로와 포기(고백)이고, 다른 하나는 공산주의 상(像)에 따른 인간 개조(재교육)이다. 참조: Robert Jay Lifton, *Thought Reform and the Psychology of Totalism: A Study of ‘Brainwashing’ in China*,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9, 3-7; Benjamin Zablocki, “Toward a Demystified and Disinterested Scientific Theory of Brainwashing”, *Misunderstanding Cults: Searching for Objectivity in a Controversial Field*, eds. Benjamin Zablocki, Thomas Robbins, Toronto, Buffalo, London: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01, 165.

신종교 운동을 대상으로 논쟁들이 지속되어 왔는데, 이를 컬트<sup>5)</sup> 논쟁(cult controversies)이라고 한다.<sup>6)</sup> 컬트에 대항하는 반(反)컬트 운동(anticult movements)이 있는데, 이 운동은 세뇌<sup>7)</sup> 이론에 바탕을 둔다.<sup>8)</sup> 반컬트 운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성인 중 한 명인 심리학자 마가렛 싱어(Margaret Thaler Singer)는 세뇌의 6가지 조건<sup>9)</sup>을 말하고 벤자민 자블로키(Benjamin Zablocki)는 세뇌의 세 단계<sup>10)</sup>에 대해서

- 
- 5) 신종교 운동이 ‘컬트’라고 불릴 때는 학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성 종교와 매우 다른 믿음과 관행을 가진 사회적·심리적 문제가 있는 단체로 여겨진다. 참조: Douglas E. Cowan, David G. Bromley, *Cults and New Religions: a brief history*, Oxford: Blackwell, 2008, 1-7; J. Gordon Melton, “Perspective: Toward a Definition of ‘New Religion’”, *Nova Religio: The Journal of Alternative and Emergent Religions* 8/1, 2004, 76. 컬트의 특징에 대해서는 Lorne L. Dawson, *Comprehending Cults: The Sociology of New Religious Movemen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sup>2</sup>, 26-29 참조.
- 6) 참조: Jean-François Mayer, “New Approaches to the Study of New Religions in North America and Europe”, *New Approaches to the Study of Religion Volume 1: Regional, Critical, and Historical Approaches*, eds. Peter Antes, Armin W. Geertz and Randi R. Warne,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4, 426-430; Anson Shupe, David G. Bromley, “Introduction: The Global Scale of Anti-Cultism”, *Anti-Cult Movements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eds. Anson Shupe, David G. Bromley, New York: Garland, 1994, vii-xi; Anson Shupe, David G. Bromley, “The Modern North America Anti-Cult Movement 1971-1991: A Twenty-Year Retrospective”, *Anti-Cult Movements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eds. Anson Shupe, David G. Bromley, New York: Garland, 1994, 14-25.
- 7) 세뇌는 ‘Brainwashing’이라는 말뿐 아니라, ‘Coercive Persuasion’, ‘Mind Control’, ‘Thought Reform’ 등으로 표현된다. Margaret Thaler Singer, *Cults in our Midst: The Continuing Fight Against Their Hidden Menace*, San Francisco: Jossey-Bass, 2003, 53-54 참조.
- 8) Anson Shupe, David G. Bromley, “Introduction: The Global Scale of Anti-Cultism”, *Anti-Cult Movements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vii-xi 참조.
- 9) 세뇌의 6가지 조건: ① 당사자가 세뇌 사실을 모를 것, ② 시간과 육체적 환경을 통제함, ③ 무력감, 공포 그리고 의존감을 일으킴, ④ 과거 행동과 태도를 금함, ⑤ 새로운 행동과 태도를 주입함, ⑥ 폐쇄적인 논리 체계를 제시함. 참조: Margaret Thaler Singer, 앞의 책, 52-69; Douglas E. Cowan, “Conversion to New Religious Movements”, *The Oxford Handbook of Religious Conversion*, eds. Lewis R. Rambo, Charles Farhadia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690-691.
- 10) 세뇌의 세 단계: ① 정체성 박탈: 정체성에 대한 공격 → 독자적 생각에 대한 죄책감 형성 → 이전의 핵심 신념 파괴 → 경험적 실재와 이념적 실재 사이의 경계를 흐릿하게 함, ② 일체화(identification): 올바른 신념을 발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줌

말한다. 강압적 디프로그래밍(deprogramming)<sup>11)</sup>의 정당성을 위한 이념적 전략으로도 사용된 다수의 컬트가 ‘세뇌’를 사용한다는 주장은 신종교 운동 참여자들을 단순한 희생자로 만든다. 세뇌 이론은 학문적 연구에 의해 의문시되어 왔는데, 그것은 세뇌에 대한 실질적·이론적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sup>12)</sup> 리처드슨(James T. Richardson)은 세뇌 이론이 논리적이고 근거 자료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이것에는 본래의 세뇌 과정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를 잘못 전함, 세뇌 이론에 대한 이념적 편향, 전통적 연구들에 대한 한정된 연구 기반, 신종교 운동 참여자들의 성향과 의지 무시, 신종교 운동 참여자들의 치유 효과에 대한 무시, 신종교 운동 참여 이유에 대한 커다란 연구 전통과 ‘일반적’ 설명 무시, 신종교 운동의 ‘성공’ 결핍에 대한 무시, 디프로그래밍의 정당성을 위한 이론적 배경이 됨 등이 있다.<sup>13)</sup> 코윌(Douglas E. Cowan)은 세뇌 이론을 비판하며 신종교

---

→ 새로운 신념을 고백하게 함 → 낡은 신념 제거 → 새로운 세계관을 발전시킴 → 공동체 집단 사고에 대한 감각 양성, ③ 상징적 죽음/재탄생: 신념이 이데올로기가 됨 → 인지적이고 감정적인 재탄생. 참조: Benjamin Zablocki, 앞의 책, 181-193; Jean-François Mayer, 앞의 책, 428.

- 11) 세뇌 과정을 되돌려 참여자를 정상 상태가 되게 하는 디프로그래밍은 신종교 운동 참여자가 세뇌당하여 자발적으로 신종교 운동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가정 아래 참여자를 납치하기도 한다.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 의장이었던 아린제(Francis Arinze) 추기경은 가톨릭 교회는 반컬트적이지 않다고 말하며, 포자(Fozzia)의 주교 카살레(Giuseppe Casale)는 가톨릭 윤리와 대립하는 육체적 강압이 포함된 반컬트 단체의 디프로그래밍이 결코 수용될 수 없다고 한다. 참조: George D. Chryssides, Margaret Z. Wilkins, eds., *A Reader in New Religious Movements*, London: Continuum, 2006, 352-353; John A. Saliba, “Official Catholic Responses to the New Religions”, *Anti-Cult Movements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eds. Anson Shupe, David G. Bromley, New York: Garland, 1994, 208-211.
- 12) 신종교인들에게는 세뇌의 주요 특징인 적절하게 감정 반응을 하지 못함, 부자연스러운 표정, 그리고 체중 감소로 드러나는 갑작스럽고 급격한 인격 변화가 늘 동반되지는 않는다. 신종교 운동 참여자들의 높은 이탈률은 세뇌 이론과 모순된다. 그리고 세뇌가 되었다면 누가 되었건 언제 어떤 일이든 해야 하고, 신종교 운동에는 세뇌와 관련된 전문적인 훈련과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실질적 증거가 없다. 참조: William D. Dinges, “The Vatican Report on Sects, Cults and New religious movements”, *America* 155, 1986, 146-147; Douglas E. Cowan, David G. Bromley, 앞의 책, 113-117.
- 13) James T. Richardson, “A critique of ‘Brainwashing’ Claims about New Religious

운동에 참여하거나 떠나는 과정과 이유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여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sup>14)</sup> 회개 이론에 의하면 다른 종교로 전향하는 이유는 세뇌 이론처럼 한 가지가 아닌 상당히 복합적인 것으로 각자의 인식적 요소, 사회적 압력, 문화적 영향, 정동적(affective) 상황 등에 의해서 개종하기 때문이다.<sup>15)</sup> 따라서 세뇌 이론은 신종교인들의 신종교 운동 참여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불충분하고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세뇌라는 말은 작은 단체나 심지어는 개인에게 적용될 때 오용될 수 있다. 이 말은 실제적이거나 상상 속의 적에게 무책임하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세뇌라는 말은 매우 정치적인 특성을 가진 말로 본래의 정치적 영역에서 사용될 때 유용할 수 있다.<sup>16)</sup>

## 2. 대안적 관점에서 ‘종교적 망상’

1970년대 이후 심리학뿐 아니라 사회학과 종교학에서의 논쟁에서 신종교 운동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가 언급되어 왔다. DSM(*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III에서는 컬트적 믿음과 삶의 방식을 정신병의 원인이자 건강한 인격 발전을 막는 장애물로 여겼는데, DSM-IV부터는 정신적 장애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상담이 필요한 종교적이고 영성적인 문제에 대한 진단 범주를 소개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적 문제에는 신종교 운동으로의 개종이 포함된다. 학자들은 컬트가 파괴적일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정신 건강에 해롭다는 것에 대한 일반화는 의문시한다.<sup>17)</sup>

Movements”, *Cults in Context: Readings in the study of New Religious Movements*, ed. Lorne L. Dawson, New Jersey: Transaction Publishers, 2012, 217-224 참조.

14) Douglas E. Cowan, 앞의 책, 694-699 참조.

15) 참조: Douglas E. Cowan, David G. Bromley, 앞의 책, 217; Lewis R. Rambo, Charles Farhadian, eds., *The Oxford Handbook of Religious Convers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16) Kathleen Taylor, 앞의 책, 5-11.

17) John A. Saliba, “Psychology and New Religious Movements”, *The Oxford Handbook*

최근 DSM-5는 ‘종교적 망상’에 대해서 말한다. DSM-5에서 망상(Delusion)이란 “상반되는 증거에 비추어도 변화되지 않는 고정된 믿음”<sup>18)</sup>으로 여기에는 종교적인 것도 포함된다. DSM-5에서 망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망상이란, 다른 거의 모든 사람이 믿고 있고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며 그 반대가 되는 분명한 증명과 증거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실재에 대한 잘못된 추론에 기반하여 확고히 견지된 거짓 믿음으로, 다른 인류 문화 혹은 하위문화의 구성원들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믿음이다.<sup>19)</sup>

종교적 망상, 곧 거짓 믿음은 인류 문화 혹은 하위문화에 받아들여지지 않음에도 강력하게 견지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sup>20)</sup> DSM-5에서는 종교적 혹은 영성적 문제에 대해서 V-Code를 준다. ‘V-Code’는 비록 비임상 코드로 간주되지만 DSM-5에 포함된 것은 이 코드가 치료 계획에 있어서 중요하며, 치료적으로 유용하다는 것을 시사한다.<sup>21)</sup> DSM-5에서는 V62.89(Z65.8) ‘종교적 혹은 영성적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범주는 치료적 관심의 초점이 종교적 혹은 영성적 문제일 때 사용될 수 있다. 그 예에는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거나 잃는 것, 새로운 믿음으로 전향하는 것과 관련된

*of New Religious Movements* vol. II, eds. James R. Lewis, Inga B. Tøllefse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6<sup>2</sup>, 84-87 참조.

18)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2013<sup>5</sup>, 87.

19) 같은 책, 819.

20) DSM-IV, DSM-IV-TR(Text Revision)은 위의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DSM-III에서는 문화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다른 사람들이 함께 믿고 있어도 종교적 망상으로 진단이 내려질 수 있다. 그래서 DSM-IV(1994)가 진단 기준이 되어 문화적 요소가 정확한 진단과 진단 공식화(diagnostic formulation)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다. George Stoupas, Vassilia Binensztok and Len Sperry, “Understanding the Spiritual Domain through Case Conceptualization”, *Spirituality and Religion in Counseling: Competency-Based Strategies for Ethical Practice*, eds. Carman S. Gill, Robert R. Freund, New York: Routledge, 2018, 67 참조.

21) 같은 책, 67-68 참조.

문제, 혹은 조직된 교회 혹은 종교 기관과 반드시 관련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영적 가치에 대한 의문을 포함한 고통스러운 체험을 포함한다.<sup>22)</sup>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방법의 적절성

근거 이론의 목적은 자료에 근거한 이론을 만드는 것이다. 근거 이론을 구축한 글레이저(Barney G. Glaser)와 스트라우스(Anselm L. Strauss)는 논리적으로 추론된 연역적 이론과 실증적 세계는 불일치할 가능성이 있기에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파생·개발·통합된 이론을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한다.<sup>23)</sup> 이들은 구체적인 현실로부터 발견의 맥락에서 도출된 귀납적 이론을 근거 이론이라고 부르고 개념 화합으로써 기존의 ‘가설-연역적 실증주의’ 이론화가 지닌 비맥락성과 비실용성을 극복하고자 하였다.<sup>24)</sup> 근거 이론을 통해서 도출된

22)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앞의 책, 725. V-Code는 정신병은 아니지만 환자의 진단·과정·예측·치료에 영향을 주어 임상적 주의의 초점이 될 수 있는 기타 조건들을 말한다. PsychDB, “V Codes (DSM-5) & Z Codes (ICD-10)”, <https://www.psychdb.com/teaching/dsm-v-icd-z-codes>(검색일: 2023.5.21) 참조. 최근 ICD(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11에서는 ‘종교적 망상’(MB26.08)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다른 종교 단체의 구성원들이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주제나 대상과 관련된 망상”: ICD-11 for Mortality and Morbidity Statistics, “Religious delusion”, <https://icd.who.int/browse11/l-m/en#http://id.who.int/icd/entity/1284844079>(검색일: 2023.5.21).

23) 참조: Barney G. Glaser, Anselm L. Strauss,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New York: Aldine Publishing Company, 1967, 1-6; Juliet Corbin, Anselm Strauss,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2015<sup>4</sup>, 3-8(이하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로 표기); Juliet Corbin, Anselm Strauss, 『근거이론』, 김미영 외 7인 역, 현문사, 2019, 3-8(이하 『근거이론』으로 표기).

24) 참조: 김인숙, 『사회복지연구에서 질적방법과 분석』, 아산재단 연구총서 405, 집문당, 2016, 113-114; 권향원, “근거이론의 수행방법에 대한 이해: 실천적 가이드라인과 이론적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2, 2016, 187.

이론은 보편과 특수 사이에 있는 ‘중범위 이론’(mid-range theory)이며, 이 이론은 다수의 특수한 맥락들의 권역 안에서 설명력을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sup>25)</sup> 근거 이론의 관심은 사회적 환경과 맥락이 사람들의 행동과 상호 작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에 있는데,<sup>26)</sup> 생성된 모든 이론에는 근거가 있으며, 연구 현상에 대한 또 다른 통찰과 이해를 제공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유용한 행동을 위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식을 창출 및 축적해 나가는 것이다.<sup>27)</sup>

‘양적 연구 방법’을 통해서서는 표본 속의 개인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느낌, 경험을 알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sup>28)</sup> 잘 알려지지 않은 민감하고 정서적으로 깊이 있는 주제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통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자 할 때 ‘질적 연구’가 적합하다.<sup>29)</sup>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그려내는 근거 이론은 실천 지향적 연구에 부합하는 연구 방법으로, 어떤 연구자들이 실제적 현상에 대한 이론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근거 이론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sup>30)</sup> 본 연구의 목적은 신종교 운동 에스 피해자들의 회복 과정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며, 이를 토대로 이들의 회복을 위한 사목적 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구체적 사목을 위한 근거 자료로서 이론을 생성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 ‘근거 이론’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 2.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이론적 표집’(theoretical sampling)<sup>31)</sup>의 방

25) 권향원, 앞의 책, 191-192 참조.

26) 김인숙, 앞의 책, 114 참조.

27) 『근거이론』, 18-24 참조.

28) 윤택림,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연구 방법론』, 아르케, 2004, 22 참조.

29) 데보라 K. 패짓,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 사회복지학 총서 40, 유태균 역, 나남출판, 2001, 31-37 참조.

30) 참조: 에드먼드 셔먼·윌리엄 리드,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의 이론과 활용』, 유태균·이선혜·서진환 역, 나남출판, 2003, 149-150, 181; 『근거이론』, 389-390.

31) 이론적 표집이란 범주 및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집중적 자료 수집 방법이다. 『근거이론』, 114 참조.

법으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먼저 연구자들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가톨릭 교회의 회복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기관의 책임자에게 문의 후 승인을 받고 연구 참여자 모집 포스터를 붙여 한국계 그리스도교 신종교 운동 체험이 있는 이들로 스스로 한국계 그리스도교 신종교 운동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발적 연구 참여자들을 모집하였다. 이들을 토대로 도출된 이야기와 관련되어 보이는 개념에 근거해 자료 수집을 하였는데, 분석 진행 중 범주 및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집중적인 자료 수집을 하였다.<sup>32)</sup> 모집된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에스 탈퇴자들이었는데, 연구 참여자 1, 2, 3, 5, 6, 7은 포스터를 통해 모집되었으며, 연구 참여자 4, 8, 9는 이전 연구 참여자의 소개를 받아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sup>33)</sup>을 하였다. 연구 참여자 9명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

| 이름 | 성별 | 연 령    | 종 교 | 결혼 | 에스 활동 기간        | 직 업   |
|----|----|--------|-----|----|-----------------|-------|
| 1  | 여  | 20대 중반 | 천주교 | 미혼 | 2017.11-2021.08 | 학 생   |
| 2  | 여  | 20대 중반 | 천주교 | 미혼 | 2019.04-2020.03 | 학 생   |
| 3  | 여  | 30대 후반 | 천주교 | 기혼 | 2011.11-2021.05 | 주 부   |
| 4  | 여  | 20대 후반 | 무 교 | 미혼 | 2015.07-2017.12 | 간호사   |
| 5  | 남  | 30대 초반 | 천주교 | 미혼 | 2016.07-2019.09 | 회사원   |
| 6  | 여  | 20대 후반 | 천주교 | 미혼 | 2016.04-2019.09 | 학원 강사 |
| 7  | 여  | 40대 초반 | 천주교 | 기혼 | 2017.03-2021.07 | 회사원   |
| 8  | 여  | 20대 후반 | 천주교 | 미혼 | 2016.06-2017.12 | 회사원   |
| 9  | 여  | 20대 후반 | 천주교 | 미혼 | 2016.07-2019.03 | 무 직   |

32) 『근거이론』, 144-147, 260 참조.

33) 눈덩이 표집이란 한 사람의 표집 단위로부터 시작하여 그를 통해 비슷한 형태의 사람들을 소개받아 표본의 크기를 계속 키워나가는 것이다. 제니퍼 메이슨, 『질적 연구 방법론』, 김두섭 역, 나남출판, 1999, 164 참조.

### 3. 자료 수집 및 분석

자료 수집은 연구 참여자 모집 포스터와 눈덩이 표집의 방법으로 모집하였는데, 연구 조건에 부합한 연구 참여자 선정,<sup>34)</sup> 연구 참여가 자발적인지 확인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 작성, 연구 참여자와 1:1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하였다. 심층 인터뷰 전 이론적 민감성을 위해서 기존의 연구들과 반(反)에스 인터넷 카페들과 책을 통해 탈퇴자들의 탈퇴 후기들을 보았으며, 오랜 경력이 있는 교리 상담사를 만나 전문가적 관점과 견해를 청취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토대로 1:1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그들의 경험을 탐색하였으며, 연구자들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문제는 그때그때 유연한 질문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의 시간과 장소는 연구 참여자가 편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 하였다. 인터뷰는 탈퇴 후 회복 과정에 대한 내용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에 있어서 녹취한 인터뷰 내용을 전사하여 ‘원자료’(raw data)를 구성하였는데, 1:1 심층 인터뷰와 분석의 과정에서 경청의 자세를 유지하며 ‘발견’과 ‘출현’의 논리를 충실하게 따르려 하였다. 기존의 선입관에 매이지 않도록 판단 중지(epoché), 그리고 끊임 없는 비교와 질문을 통해 연구가 연구 자체를 이끌어 가도록 하였다. 스트라우스와 코빈의 근거 이론에 따라 코딩 작업을 하여 개방 코딩, 선택 코딩, 축 코딩 이후 회복 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과 이론화까지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과 분석을 함께 하였는데, 자료 수집과 분석은 ‘지속적 비교’와 ‘이론적 표집’을 통해 연구가 포화 상태<sup>35)</sup>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었다.<sup>36)</sup>

34) 조건에 맞는 이는 한국계 그리스도교 신종교 운동 체험이 있는 이로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다. 조건이 맞지 않는 이는 ‘연구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할 수 없으며,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터뷰를 진행할 수 없는 이’이다.

#### 4. 연구의 윤리성과 엄격성

본 연구는 탈퇴자들의 탈퇴 후 경험을 다루는 것이기에 윤리적 민감성이 요구된다. 그렇기에 연구자들은 연구 전에 연구 참여자들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서강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았다(IRB 승인번호: SGUIRB-A-2206-27). 연구 참여자들에게 인터뷰 전에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비밀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알려주었으며, 모집 장소와 기관명도 비밀로 하겠다는 것도 안내하였다. 수집하는 개인식별정보(개인 전화번호, 인터뷰 녹음 파일, 녹취 파일)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었으며, 이 정보들은 IRB 승인일로부터 1년 뒤인 2023년 5월까지 전부 폐기될 것을 설명하였다. 이 정보들은 연구자들의 지문을 통해서만 로그인 가능한 노트북에 익명으로 저장될 것과 본 연구가 학술지나 학회에 공개될 때도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정보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된 형태로 사용될 것임을 안내해 주었다. 심층 인터뷰 수행 전 심리적 문제 발생 시 연구를 중단하고 심리 상담소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다고 안내하였으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연구 참여는 자발적 동기가 있었더라도 지금까지나 연구 도중, 그리고 인쇄물이 나오기 전까지 철회해도 된다는 것, 만일 소개자가 있었다면 연구 참여 철회 사항에 대해서 비밀로 하겠다는 것을 안내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문화상품권을 드렸다.

본 연구는 연구의 엄밀성과 타당성을 위해 먼저 근거 이론에 대한 평가 기준을 참고하였다.<sup>37)</sup> 근거 이론에 대한 비판 중에 하나가 연구자들의 자의적인 해석과 분석에서 벗어나 어떻게 엄밀성과 타당성을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삼각검

35) 포화 상태는 새로운 범주 또는 관련 주제가 나타나지 않을 때이다. 『근거이론』, 150 참조.

36) 『근거이론』, 74-76, 144-162, 234-238 참조.

37) 참조: 『근거이론』, 370-3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341-368.

증(triangulation)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인터뷰 후 연구 결과의 기술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당사자와 기술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였다. 둘째, 주기적으로 교신 저자와 분석 과정을 토의해 나갔다. 셋째, 근거 이론 수행 경험이 있는 교수 1인, 질적 연구자 1인을 동료 집단으로 구성하여 분석 결과를 공유하며 분석 내용이 적절한지 조언을 구하였다. 넷째, 최종 연구 결과를 각 연구 참여자들과 오랜 경력을 가진 교리 상담사와 공유하여 확인 작업을 거쳤다. 이때 두 명의 참가자들과 용어 및 세부 내용에 대한 심층적인 확인 작업을 거쳤는데, 현재 심리학과 대학원생인 에스 탈퇴자 참가자에게도 확인 작업을 부탁하였다. 그리고 자료 수집과 분석 과정 전반에 대한 기록은 문서로 남겨 연구의 엄밀성과 타당성을 담보하였다.<sup>38)</sup>

## IV. 연구 결과 분석

### 1. 개방 코딩(open coding)

코딩은 연구자들이 자료의 의미라고 해석한 것을 개념적으로 서술하는 것인데, 때로는 참여자들이 유용한 개념을 제공하기도 한다.<sup>39)</sup> 개방 코딩은 자료를 쪼개고, 살펴보고, 비교하고, 개념화하고, 범주화하는 자료 분석 과정이다.<sup>40)</sup> 개방 코딩에서는 개념들을 범주

38) 데보라 K. 패짓, 앞의 책, 180-196 참조.

39) ‘생체 내 코드’(in vivo code)는 응답자의 말에서 가져온 것으로 본 연구는 그 민감성 때문에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연구 참여자들의 인터뷰 내용에 충실하여 개념화 작업을 하고자 하였다. 참조: Anselm Strauss, Juliet Corbin,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1998<sup>2</sup>, 105[이하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1998<sup>2</sup>)로 표기]; Anselm Strauss, Juliet Corbin, 『근거이론의 단계』, 신경림 역, 현문사, 2001, 95(이하 『근거이론의 단계』로 표기); 『근거이론』, 234-235, 239;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216-217, 220.

40) Anselm Strauss, Juliet Corbin,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1990, 61 참조[이하

로 무리 짓고, 범주 아래 하위 범주로 분해하는 과정을 거친다.<sup>41)</sup> 연구자들은 원자료에서 출현된 176개의 개념에 대한 추상화 과정을 거쳐 48개의 ‘하위 범주’ 그리고 15개의 ‘범주’를 발견하였다.

〈표 2〉 연구 참여자들의 탈퇴 후 회복 과정에 대한 개념, 하위 범주, 범주 목록

| 범 주  |                           |
|--|---------------------------|
| 개 념  | 하위 범주                     |
| 치밀한 기만적 선교 전략  |                           |
| 미지근한 신앙생활, 에스와 에스의 선교 방식에 대한 무지, 에스에 대한 무지로 인한 가족들의 무관심  | 자신의 신앙과 에스에 대한 무지         |
| 자신에 대한 사전 정보를 알고 있었던 에스, 에스의 치밀한 사전 전도 계획, 신분을 숨긴 에스인들의 기만적 행동으로 가지게 된 에스에 대한 신뢰에 의한 복음방 성경 공부 시작                                  | 치밀한 사전 전도 계획에 의한 기만적 접근   |
| 어려움 중 공감적 대화와 지지에 의해 마음이 열림, 정체를 숨긴 에스인들이 친구가 되어줌, 에스인들의 헌신적 도움과 우애 속에서의 에스에 대한 안심, 마음 사기 <sup>42)</sup> 에 의한 에스 센터 성경 공부 시작       | 사랑 폭탄에 의한 센터 성경 공부 시작     |
| 성경 공부 사실을 비밀로 할 것을 요구, 성경 말씀 악용에 의한 외부 차단, 스스로 외부에 성경 공부 사실을 숨김  | 외부 정보 차단 요구에 의한 자기 폐쇄     |
| 이탈 방식을 위해 센터 교육 중 은연중 심판에 대한 지속적 두려움 주입, 센터 교육 중 성경적으로 에스 수용을 준비시킴, 에스의 철저한 기만적 전도 전략에 의한 사후(事後) 에스 공개, 에스의 기만적 선교 전략을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 | 기만적 센터 교육에 의한 에스 수용       |
| 에스의 성경에 대한 왜곡된 시각 주입, 에스 성경 공부 안에서 말씀의 뜻을 알아가는 재미, 에스 성경 교육 내용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여 입교 결심  | 에스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여 입교 결심     |
| 필요와 열망에 의한 에스 입교   |                           |
| 장래에 대한 두려움 속의 대학 생활, 취직과 내면적 성숙을 위한 자기 개발에 대한 필요를 느낌, 자기 개발을 위하여 에스 성경 공부를 시작  | 장래에 대한 불안함 속 자기 개발에 대한 필요 |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1990)로 표기].

41) 개념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이것들을 보다 추상적인 설명적 용어로 범주화한다. 범주가 확인되면 속성과 차원에 따라 발전시키는데, 여기서 하위 범주로 구별하여 나뉘므로써 범주에 존재했을 만한 언제, 어디에서, 왜 그리고 어떻게 등을 설명한다.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1998<sup>2</sup>), 114 참조.

|  |  |
|--|--|
| <p>가족 간 가치관 차이에 의한 가족 불화로 인한 고통, 에스 성경 공부 안에서 가족 불화 해결을 위한 희망 발견, 가족 불화 해결을 위한 에스 성경 공부 시작</p>   | <p>가족 불화 문제 해결에 대한 필요</p>                |
| <p>미지근한 신앙 속 하느님에 대한 열망, 더 깊은 신앙생활을 위한 성경 공부에 대한 열망, 에스 성경 공부를 하느님의 선택과 섭리로 생각</p>   | <p>하느님과 성경 공부에 대한 열망</p>                 |
| <p><b>내부·외부 정보 통제 속 철저한 조직적·사상적 관리</b></p>   |  |
| <p>구원에 대한 불안을 조장하여 외부 정보를 차단하는 에스, 교리 상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공포 주입, 에스의 내부·외부 정보 통제 속에 인간관계와 머릿속이 에스와 관련된 것들로만 채워짐</p>   | <p>이탈자 방지를 위한 철저한 내부·외부 정보 통제</p>        |
| <p>비열성적 신자에 대한 밀착 관리, 학교 및 가족생활에 우선한 철저한 에스 생활 요구, 에스의 이탈자 방지를 위한 조직 설립과 교리 상담 거부 및 가출 종용, 이탈자 방지를 위한 사생활에 대한 지나친 관여</p>   | <p>이탈자 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직적 관리</p>             |
| <p>발각되지 않기 위한 기만적 삶에 대한 성경적 정당화, 외부의 부정적 시선과 정보에 대한 지속적 반증 교육<sup>45)</sup>을 통한 자기 합리화, 성경 말씀을 악용한 외부 정보에 대한 부정적 인식 주입과 왜곡, 세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 주입으로 에스 생활에 몰입하게 함, 지속적 정신 교육에 의한 상명하복적 에스 생활 종용, 주입된 심판에 대한 두려움 속의 불가항력적 에스 생활, 에스 말씀이 맞기에 에스 생활을 인내하며 투신함, 하느님 소속으로 하느님의 역사 완성을 위해 일하는 공동체원들 속에서의 유대감과 자부심</p> | <p>이탈자 방지를 위한 철저한 사상적 관리에 의한 종교적 망상</p>  |
| <p><b>그물망적 강요 속 구원을 위한 헌신적 전도 생활</b></p>   |  |
| <p>조성된 압박한 종말론적 분위기 속에서 학교 및 가족생활의 포기, 압박한 조건부 종말론 속에서의 헌신적 전도 생활</p>  | <p>압박한 조건부 종말론적 분위기 속에 요구된 헌신적 전도 생활</p> |
| <p>성경을 악용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 속의 불가항력적 전도 생활, 구원 교리를 변경하여 더 헌신적으로 전도 생활을 하게 하는 에스, 부추겨진 경쟁 속에서의 헌신적 전도 생활</p>  | <p>협소한 구원관 속에서의 불가항력적 전도 생활</p>          |
| <p>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하며 헌신적 전도 생활을 해야 했던 에스 생활, 윗사람자들의 전도에 대한 강압과 폭력에 의한 불가항력적 전도 생활, 과도하게 하달된 전도 할당량에 의한 정신 및 육체적 소진</p>   | <p>피라미드 구조 속 강요된 헌신적 전도 생활로 인한 소진</p>    |
| <p>현세적 복락(육체 영생과 권력, 부 등)에 대한 희망 속에 헌신적 전도 생활, 자신과 가족 구원에 대한 책임감 속에 자기 소멸적 전도 생활을 감내함</p>  | <p>자신과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자기 소멸적 전도 생활을 감내함</p> |

| 삶의 총체적 파괴  |                                 |
|--|---------------------------------|
| 현신적 에스 생활로 소홀해진 가족생활, 에스의 가출 지시에 의한 가족생활의 파탄   | 현신적 에스 생활로 인한 가족생활의 파괴          |
| 종말론적 분위기 속 요구된 현신적 에스 생활로 학업에 신경 쓰지 못함, 에스의 가출 지시에 의한 학교생활의 파탄, 취직 문제에서의 퇴행, 현신적 에스 생활을 위한 꿈 포기  | 현신적 에스 생활로 인한 취업 문제에서의 심각한 타격   |
| 오직 전도만을 위한 전략적 만남으로 인한 인간관계의 단절, 현신적 에스 생활로 인한 사회생활의 단절  | 현신적 에스 생활로 인한 사회생활의 파괴          |
| 종교적 망상으로 인한 후유증  |                                 |
| 종교적 망상이 깨진 후의 충격과 혼돈, 에스가 거짓임을 안 후의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종교 사기를 당한 것에 대한 분노와 슬픔, 사이버 종교 단체에서 생활한 것에 대한 자책과 허망함, 종교 사기를 당하고 있는 에스인들에 대한 안타까움, 교주와 에스에 대한 혐오, 종교 사기를 당한 상처에 의한 인간에 대한 불신, 에스 탈퇴 후의 공허함과 무기력함 | 종교적 망상이 깨진 후 감정적 소용돌이 속 자기 붕괴   |
| 자신을 방치한 하느님에 대한 분노, 강압적 신앙생활로 인한 종교 생활에 대한 부정적 인식  | 부정적 에스 체험으로 하느님과의 관계 파괴         |
| 인도 열매 <sup>44)</sup> 에 대한 죄책감 해소를 위한 노력과 어려움, 에스 생활로 생긴 공백으로 인한 교우 관계 안에서의 고독과 자괴감, 에스인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편견으로 인한 상처, 성당 사람들의 편견으로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기 어려움                                   | 에스 생활로 인한 인간관계 뒷수습 문제로 고통       |
| 기만적 에스 생활로 깨진 가족 간의 신뢰, 교리 상담 진행 중 가족들 간의 상처, 에스가 잘못됨을 인지 후 자책으로 인한 가족 관계 회복에서의 어려움  | 가족 간의 관계 회복의 어려움                |
| 평생 낙인이 될 것 같은 에스 생활, 에스식 자동적 사고로 인한 고통, 에스가 거짓됨을 인지한 후에도 찾아오는 심판에 대한 불안감   | 낙인처럼 남은 에스 생활과 사고로 인한 고통        |
| 교리 상담을 통해 에스가 종교 사기임을 인지   |                                 |
| 가족들의 에스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인식, 늘 바쁘게 지내는 나에 대한 가족들의 의심, 지인의 제보로 가족들에게 에스인 임이 발각됨, 에스에 다니는 것을 인정한 후 가족과의 분란, 가족들이 교리 상담을 계획함   | 에스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된 가족들이 교리 상담을 계획함 |
| 심판에 대한 두려움 속 교리 상담에 대한 저항, 가족들의 끈질긴 교리 상담에 대한 요구, 깨진 신뢰 관계로 인한 교리 상담을 받겠다는 나에 대한 가족들의 의심, 가족들과의 대립 속 힘겨운 교리 상담에 대한 수용, 에스의 사전 교육에 의한 교리 상담사에 대한 의심과 대립   | 가족들과의 대립 속 교리 상담에 대한 힘겨운 수용     |

|  |  |
|--|--|
| <p>탈퇴자들의 탈퇴 후기에 마음이 열림, 에스 교리의 오류에 대한 성경적 입증으로 에스 말씀이 잘못됨을 인지, 에스가 잘못된 구원관을 가졌음을 인지, 에스가 잘못된 신관을 가졌음을 인지, 『격암유록』<sup>49)</sup>과 타-사이비 종교와의 유사성 발견을 통해 에스 교리가 짜깁기식 교리임을 인지, 에스의 실상 교리가 조작되었음을 인지, 교주의 비윤리적인 모습에 대한 실망, 에스가 거짓됨을 인지 후 참된 신앙에 대한 갈증</p> | <p>에스가 종교 사기임을 알게 된 후 참된 신앙에 대한 갈증</p>         |
| <p><b>공감적 대화와 지지</b></p>   |  |
| <p>가족들의 전적인 공감과 지지에 의한 에스 상처의 치유, 교리 상담 진행 과정 중 받은 상처들에 대한 가족 간의 진솔한 대화를 통한 치유, 회복의 원인으로서는 부모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대한 고마움</p>   | <p>가족들 간의 공감적 대화와 지지를 통한 파괴된 가족 관계의 회복과 치유</p> |
| <p>탈퇴한 이들과의 공감적 대화를 통한 혼란한 마음의 안정과 치유, 먼저 탈퇴한 이들의 공감과 위로 안에서 에스 체험을 수용 및 승화, 탈퇴한 이들과의 공감적 대화를 통한 교리 상담 중 발생한 가족 간의 상처 치유와 가족에 대한 죄책감 해소, 상실된 인간관계로 인해 공허한 마음을 채워준 탈퇴자들과의 만남, 충격과 혼돈 속에서 먼저 탈퇴한 이들과의 대화 안에서의 사회 재적응 문제에 대한 고민 나눔과 조언, 그리고 희망</p>      | <p>탈퇴한 이들과의 공감적 대화와 만남 안에서의 지지와 치유</p>         |
| <p>신부들의 신앙 문제 등 당면 문제들에 대한 조언과 문제 해결, 신부들의 공감적 수용과 신앙적 해석을 통한 에스 체험의 수용과 회복</p>  | <p>신부들의 조언과 지지를 통한 치유</p>                      |
| <p><b>회복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심리적 상처 치유와 올바른 신앙 확립</b></p>  |  |
| <p>회복 교육 프로그램 안에서의 자기 성찰과 심리적 상처 돌보기, 회복 교육 피정 안에서 가족 간의 소통을 통한 심리적 상처 치유, 회복 교육 심리 상담 프로그램 안에서의 심리적 상처 치유</p>   | <p>회복 교육 안에서의 자기 성찰과 심리적 상처 치유</p>             |
| <p>회복 교육 안에서의 신앙적 궁극증 해소를 통한 회복, 회복 교육을 통한 천주교 신앙에 대한 정립과 확신, 회복 교육 안에서 올바른 신앙을 정립함으로써 얻은 마음의 평화, 회복 교육을 통한 주체적 신앙생활 영위</p>  | <p>회복 교육을 통한 올바른 신앙 확립과 주체적 신앙생활</p>           |
| <p><b>취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b></p>  |  |
| <p>탈퇴 후 사회 재적응 문제 앞에서의 당혹감, 현실적 고민들로 자신의 상처를 잘 돌볼 수 없었던 나, 에스 생활로 인한 학업 단절에 대한 뒷수습을 위한 노력</p>  | <p>학업 단절에 대한 뒷수습을 위한 노력</p>                    |

|  |   |
|--|---|
|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오기 위해 취직 준비를 하며 에스 생활로 인한 공백을 채워 나감, 취직 사이트나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교육이나 취직 모임에 참여  |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오기 위한 취직 준비                 |
| <b>가족 관계 회복 노력</b>   |   |
| 가족들과 적극적으로 함께하기, 불안해하는 가족들을 위해 에스인들의 연락처 차단하기, 가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같이 성당에 다님  | 무너진 가족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                    |
| 무리한 교리 상담 진행으로 인한 가족 간의 상처로 대화가 어려움, 에스 체험에 대한 가족과의 적극적 대화 시도  | 가족과의 적극적 대화 시도                            |
| <b>인간관계 안에서의 어려움 극복 노력</b>   |   |
| 코로나 이후 ‘오픈 전도’에 따른 인간관계 뒷수습 문제로 인한 어려움, 먼저 탈퇴한 친구에게 인간관계 뒷수습에 대한 조언을 청함, ‘오픈 전도’를 한 친구에게 에스 탈퇴 공개와 비밀 유지 요청, 미해결 과제로서 모략 전도를 한 친구들과의 관계 회복   | 인간관계 뒷수습을 위한 노력                           |
| 사회적 낙인에 대해 당당하게 맞섬, 낙인을 딛고 미래를 향해 소신 있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감  | 사회적 낙인 해결을 위한 노력                          |
| <b>신앙생활 회복 노력</b>  |   |
| 에스 생활로 신앙생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있으나 포기하지 않으려 함, 공허함과 무기력함을 극복하기 위해 성당 봉사과 기도 모임에 참석,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의 조화를 위한 노력   | 부정적 신앙생활에 대한 체험을 딛고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의 조화를 위한 노력 |
| 신앙생활 회복을 위한 청년 영성 프로그램 참여, 청년 영성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가족들에 대한 심리적 상처 치유, 청년 영성 프로그램 안에서 올바른 신앙 방향성 발견, 청년 성경 연수 안에서 성경에 대한 인간 이성 너머의 신비적 인식 차원 있음을 인지 | 신앙생활 회복을 위한 영성 프로그램 참여                    |
| <b>승화된 새로운 일상생활을 영위</b>  |   |
| 에스 탈퇴 및 회복 과정에 대한 감사함, 탈퇴 과정을 통해 더욱 거룩한 삶으로 부르신 하느님, 에스 문제에 대한 승화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는 일상을 영위, 에스 체험과 탈퇴 과정에 대한 수용과 새로운 해석을 통한 더 나은 미래로 전진         | 지울 수 없는 에스 체험과 탈퇴 과정에 대한 수용과 승화           |
| 비난이 아닌 온전한 자기 수용과 주체성 회복, 회복된 가족 간 대화 안에서 에스 체험에 대한 수용과 승화, 소원했었던 인간관계들의 복구를 통한 회복, 사랑의 하느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                       | 파괴된 관계들의 회복                               |

|  |  |
|--|--|
| <p>에스 탈퇴 체험을 통해 참된 가치 질서를 발견함, 회복 교육을 통한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양심적인 삶, 에스 탈퇴 체험을 통해 변화된 인생 및 인간관,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서 가족</p>   | <p>변화된 가치관에 따른 새로운 삶</p>                       |
| <p>전도 목표 달성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에서 벗어나 참된 종교 안에서 누리는 안정,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사랑의 하느님 체험 안에서의 기쁨, 심판의 하느님에서 사랑의 하느님에 대한 믿음으로 변화된 삶 안에서의 안정과 이웃 사랑의 삶,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일상의 회복</p>  | <p>올바른 신앙생활 안에서 누리는 평화와 이웃 사랑의 삶</p>           |
| <p>에스로 인한 1·2차 피해 예방 활동</p>  |  |
| <p>지인 에스인들의 탈퇴를 돕기, 반에스 활동을 통한 에스인들의 탈퇴 돕기</p>   | <p>반에스 활동을 통한 에스인들의 탈퇴 돕기</p>                  |
| <p>에스인들의 외부 정보와의 소통 안에서 에스와 에스 교리에 대한 비판적 사고 요청,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종교 사기극에서 빠른 탈출 요청, 교주의 회개 요청, 에스에서 탈퇴해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주체적인 삶을 살기 바람</p>   | <p>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에스에서의 탈퇴 요청</p>           |
| <p>에스에 빠진 이들의 안전한 탈퇴와 회복을 도울 수 있는 교회 내 시스템 마련과 전문 인력 양성 요청, 탈퇴자들의 교회 정착을 위한 공감과 지지 요청, 탈퇴자들이 지속적으로 공감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멘토와 공동체 요청, 탈퇴자 가족들을 위한 가족 상담 프로그램 요청, 성경 공부 등 신자들의 영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목 요청, 체계적인 충실한 교리 교육 요청, 사회에 대한 연구와 고민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신앙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변화된 사목 요청</p> | <p>에스로 인한 피해자들의 회복과 피해 예방을 위한 교회 사목을 위한 제언</p> |
| <p>사이비 종교 집단을 오히려 이용하는 정치와 사회에 대한 실망, 사이비 종교 집단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을 통한 종교 사기로부터 국민 보호 요청, 사이비 종교 집단에 의한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 요청, 사이비 종교 집단에 대한 투명한 법 집행 요청, 잘못된 가치관을 식별할 수 있는 윤리 교육 강화 요청, 탈퇴자들에 대한 시선 개선 요청</p>   | <p>사이비 종교 집단에 의한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국가적 활동 요청</p>   |

- 42) 연구 참여자들에 의하면 에스는 입교 과정에서 소위 ‘마음 사기’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철저히 자신의 신분을 숨긴 에스인들이 선교 대상자의 필요와 열망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 43) 연구 참여자들에 의하면 ‘반증 교육’이란 외부의 객관적 정보에 대한 왜곡을 통한 사상 재정비 교육이다.

① 치밀한 기만적 선교 전략: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신앙과 에스에 대한 무지’ 속에 있었다. 이것은 이들이 에스에 입교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된다. 에스는 이들에게 ‘치밀한 사전 전도 계획에 의한 기만적 접근’을 해 온다. 길거리 선교(노방 전도)에 의해 전도된 경우도 있지만 어떤 참여자는 신분을 숨긴 에스인이 5년간 친밀한 관계 맺음을 해 온 후 본격적인 전도 시도를 하였다(연구 참여자 3). 에스는 선교 대상자를 정하여 거의 매일 아침·저녁으로 계획을 짜서 접근한다. “지금 전도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서로 공유해서 어떤 모략<sup>46)</sup>을 가지고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해서 이 사람을 하느님 앞으로 데려올지 회의를 하는 시간이에요”(연구 참여자 7). 그리고 자신의 사전 정보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신분을 숨긴 에스인인 심리 상담사, 심지어는 무당이나 타로점을 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은사 치기)<sup>47)</sup> 자신의 상황과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들을 통해 에스 복음방 교육<sup>48)</sup>을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사랑 폭탄<sup>49)</sup>’에 의한 센터 성경 공부 시작’을 하는데, 성경 공부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는 ‘외부 정보 차단 요구에 의한 자기 폐쇄’를 한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에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음

44) 연구 참여자들에 의하면 ‘인도 열매’란 자신이 에스로 입교시킨 사람을 말한다.

45) 16세기의 격암 남사고(南師古, 1509-1571)의 저서라고 알려져 온 『격암유록』은 1958년 박태선이 세운 신앙촌에 작성된 위서(僞書)로 보여진다. 허호익, “『격암유록』의 위조와 기독교 이단들의 종교혼합주의”, 『長神論壇』 36, 2009, 41-70 참조.

46) 여기서 ‘모략’은 개역한글 성경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사 46:10)에서 유래한 것이다. 에스는 세상적인 의미에서 모략은 타인을 해치기 위한 속임수이지만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롬 3:7)를 근거로 모략은 하느님의 참되심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가르친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략이 승리한다고 가르친다. “나의 모략으로 싸우고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잠 24:6).

47) 연구 참여자 7에 따르면 ‘복주기’라고도 불리는데, 에스 지파마다 용어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들이 있다. 에스는 전국을 12개의 지파로 나누고 있다.

48) 연구 참여자들에 따르면 에스는 입교 전 본격적인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복음방 성경 공부를 한 뒤, 본격적인 성경 공부인 센터 교육을 약 6개월 진행한다.

49) ‘사랑 폭탄’이라는 말은 에일린 바커(Eileen Barker)가 처음 사용한 말로 관심과 배려를 퍼붓는 것을 말한다. Eileen Barker, *The Making of a Moonie: Choice or Brainwashing?*, New York: Basil Blackwell, 1984, 9 참조.

에도 ‘기만적 센터 교육에 의한 에스 수용’을 하며, ‘에스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여 입교 결심’을 한다. 이상의 내용들은 신분을 숨긴 에스인들의 철저한 사전 계획에 의한 선교 전략을 의미하기에 ‘치밀한 기만적 선교 전략’으로 범주화하였다.

② 필요와 열망<sup>50)</sup>에 의한 에스 입교: 연구 참여자들이 에스에 입교하게 된 각자의 이유가 있다. 한 부류의 참여자들은 ‘N포세대’<sup>51)</sup>로서 대입 후 ‘장래에 대한 불안함 속 자기 개발에 대한 필요’를 느꼈는데,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너의 발전에 가장 좋은 도움이 되는 방법’(연구 참여자 1)이라는 말에 에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에스에 입교하게 된다. 다른 한 부류의 참여자들은 가족 간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 속에서 ‘가족 불화 문제 해결에 대한 필요’를 느꼈는데, 성경 공부를 통해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에스에 입교하게 된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의 참여자들은 ‘하느님과 성경 공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느님을 알려면 무엇부터 알아야겠냐? 성경부터 알아야 되지 않겠냐?”는 말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에스에 입교하게 된다(연구 참여자 9). 이상의 내용들은 각자의 필요와 열망에 의한 에스 입교 과정으로 보이기에 ‘필요와 열망에 의한 에스 입교’로 범주화하였다.

③ 내부·외부 정보 통제 속 철저한 조직적·사상적 관리: 입교 후 에스는 ‘이탈자 방지를 위한 철저한 내부·외부 정보 통제’를 한다. 이러한 내부·외부 정보 통제 속에서 참여자들의 인간관계와 머릿속은 에스와 관련된 것들로만 채워지게 된다. “다 보고가 되는 거잖

50) 중간 보고서로서 가톨릭 교회의 신종교 운동에 대한 첫 번째이자 마지막 공식 문서인 바티칸 리포트는 신종교 운동 참여 이유를 ‘필요와 열망’으로 보고 있다. Secretariat for Promoting Christian Unity et al., “Vatican Report on Sects, Cults and New Religious Movements”, *Origins* 16/1, 1986, 4-6 참조.

51) N포세대란 “사회·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연애, 결혼, 주택 구입 등 많은 것을 포기한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포기한 게 너무 많아 셀 수도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시사상식사전, “N포세대”,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45263&cid=43667&categoryId=43667>(검색일: 2023.3.3).

아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어요. 전도 목적으로만 사람을 만났고, 거기 생활만 한 ...”(연구 참여자 2). 그리고 ‘이탈자 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직적 관리’를 하는데, 특히 섭외부라는 곳에서 교리 상담 등으로 인한 이탈자 발생 방지를 위한 활동을 한다. “제가 가족에게 오픈된 순간부터 섭외부랑 계속 피드백을 했었는데, 000 신부님이랑 대화(교리 상담)하는 것은 악한 거짓말을 듣는 거고 저의 영혼을 해치는 일이고,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다고 했던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8). 그리고 참여자들은 ‘이탈자 방지를 위한 철저한 사상적 관리에 의한 종교적 망상’에 빠지게 된다. 참여자들은 주입된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정신 교육에 의해 불가항력적인 상명하복적 에스 생활을 하였지만 에스 말씀이 맞기에 모든 것을 인내하였으며, 에스인들과 함께 하느님의 일을 해 나간다는 유대감과 자부심 속에서 투신해 나간다. “하느님 소속으로 일하는 것이 좋았던 것 같고 구역원들이랑 만나서 으쌰으쌰하는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6). 이상의 내용들을 에스의 이탈자 방지를 위한 내부·외부 정보 통제와 조직적·사상적 관리로 보이기에 ‘내부·외부 정보 통제 속 철저한 조직적·사상적 관리’로 범주화하였다.

④ 그물망적 전도 강요 속 구원을 위한 헌신적 전도 생활: 연구 참여자들이 에스 생활에 대해서 특징적인 것으로 하나같이 말하는 것은 전도 생활이다. 이들은 ‘임박한 조건부 종말론적 분위기 속에서 요구된 헌신적 전도 생활’을 해 나갔는데, 주부들은 가족과 육아를, 학생들은 가족과 학교생활을 등한시하였다. “하느님이 오시면 이거 아무것도 소용없는 건데, 학업이나 이런 거에 목매서 뭐 하나”(연구 참여자 1). 참여자들은 ‘협소한 구원관 속에서의 불가항력적 전도 생활’을 나갔는데, 에스는 이를 위해 구원 교리를 변경하기까지 하였다. “제가 입교했을 때는 10만 명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14만 4천 명이 차면 이제 완성<sup>52)</sup>이 된다고 들었거

52) 연구 참여자들에 의하면, 묵시 21,1의 ‘새 하늘, 새 땅’이 대한민국의 에스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역사 완성’이란 인 맞은 에스인 14만 4천 명이 차면 묵시록에서 말

든요. 근데 OO(외국)갔다 오니까 인(印) 맞은<sup>53)</sup> 14만 4천 하면서 교리가 번개됐던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3). 참여자들은 ‘피라미드 구조 속 강요된 헌신적 전도 생활로 인한 소진’이 되어 나갔는데, 교주는 전도하지 못한 사람에게 벌금을 내라고도 하였다. “OOO가 그때 연말에 전도 못 한 사람들 돈 내라고 그랬는데, 저 안 내는 것도 그건데 구역원들이 내면 안 되니까 그 구역원들 거(할당된 전도량)를 무조건 해야 되니까 전도에 대한 압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6). 그럼에도 참여자들은 ‘자신과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자기 소멸적 전도 생활을 감내함’을 해 나갔다. “전반적으로 표현을 하면 정말 저 혼자만의 천국이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에스 일을 열심히 해야만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저의 모든 우선순위는 에스에 초점이 맞춰졌었던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1). 이런 내용들은 헌신적 전도 생활을 하게끔 한 요인들로 보이기에 연구자들은 이상의 내용들을 에스의 ‘그물망적 전도 강요 속 구원을 위한 헌신적 전도 생활’로 범주화하였다.

⑤ 삶의 총체적 파괴: 연구 참여자들은 ‘헌신적 에스 생활로 인한 가족생활의 파괴’를 경험한다. 참여자들은 모략 기반적·헌신적 에스 생활로 인해서 가족들과의 대화 및 만남을 피하거나 신뢰 관계가 파괴되었는데, 특히 가출 경험이 있는 청년들은 가족 관계가 파탄 난다. “학교 수업 듣고 있는데 텔레그램이 온 거예요. ‘OO야, 내일 집 나와야겠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고) 집 나오고. 저는 부모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섭외부에서) 계속 ‘부모에게 니가 지면 안 된다. 부모님이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받아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연구 참여자 1). 그리고 ‘헌신적 에스 생활로 인한 취업 문제에 있어서의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아무것도 없죠. 그냥 인간관계도 다 박살나고 학교도 휴학해

한 종말 때의 구원 완성, 곧 ‘새 하늘, 새 땅’이 건설된다는 것이다.

53) 연구 참여자들에 의하면 여기서 인을 맞는다는 것은 요한 묵시록에 바탕을 둔 것으로(묵시 7,4 참조) 에스는 교리를 변경하여 그냥 14만 4천 명이 아닌 인 맞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한다면서 교리 시험과 전도 등을 강조하였다.

있고 … 1년 반 동안 내가 뒤로 후퇴하고 있었던 거잖아요”(연구 참여자 2). 참여자들은 ‘헌신적 에스 생활로 인한 사회생활의 파괴’를 경험하게 된다. “사회생활은 사실 전혀 못 했죠. 일도 물론 못했고. 다 전도 활동을 하나로 교회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였어요”(연구 참여자 7). 연구자들은 이상의 가족, 학교, 사회생활의 파괴 현상을 ‘삶의 총체적 파괴’로 범주화하였다.

⑥ 종교적 망상으로 인한 후유증: 탈퇴 후에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후유증으로 고통 받았다. 먼저 ‘종교적 망상이 깨진 후 감정적 소용돌이 속 자기 붕괴’를 경험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종교적 망상이 깨진 후 충격과 혼돈을 겪는데, 이때 다양한 감정적 소용돌이 속에서 고통받게 된다. “처음에 딱 나왔을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지동설을 믿고 있다가 천동설을 깨달은 그런 느낌”(연구 참여자 8). 탈퇴 후에 참여자들은 ‘부정적 에스 체험으로 인한 하느님과의 관계 파괴’를 경험하게 된다. “하느님은 왜 나를 저런 데다가 버리셨을까. 나를 기만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 그런 상처가 아직은 좀 남아 있는 거”(연구 참여자 9). 참여자들은 ‘에스 생활로 인한 인간관계 뒷수습 문제로 인한 고통’을 겪게 되는데, 특히 사회적 편견은 참여자들에게 상처를 주었을 뿐 아니라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다. “저 어려움이 하나 또 있는데, 주변에서 저를 보는 그런 시선들 때문에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연구 참여자 3). 참여자들은 ‘가족 간의 관계 회복의 어려움’도 겪었는데, 받은 상처로 인해 참여자와 가족들의 태도가 소극적일수록 어려움이 커졌다. 그리고 ‘낙인처럼 남은 에스 생활과 사고로 인한 고통’은 에스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탈퇴자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탈퇴 후에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 생각이 에스스러운 생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좀 뭔가를 생각하기가 좀 두려웠어요”(연구 참여자 9). 이상의 내용들은 연구 참여자들의 종교적 망상이 깨진 후의 어려움들로서 연구자들

은 ‘종교적 망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범주화하였다.

⑦ 교리 상담을 통해 에스가 종교 사기임을 인지: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에스에서 탈퇴하게 된 이들이다. 먼저 ‘에스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된 가족들이 교리 상담을 계획함’으로써 외부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지만 에스에서 주입된 외부 정보와 교리 상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가족들과의 대립 속 교리 상담에 대한 힘겨운 수용’을 하게 된다. 교리 상담을 통해서 참여자들은 ‘에스가 종교 사기임을 알게 된 후 참된 신앙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된다. “이제 상담을 들었을 때는 여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우치고 나왔다면, 회복 교육을 들으면서 그동안 내가 잘못 알고 있던 이런 것들은 진짜 그럼 뭐였을까가 그게 너무 궁금했었어요”(연구 참여자 7). 이상의 내용들은 연구 참여자들이 가족들의 도움으로 교리 상담을 통해 에스가 종교 사기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과정과 내용으로서 연구자들은 이상의 내용들을 ‘교리 상담을 통해 에스가 종교 사기임을 인지’로 범주화하였다.

⑧ 공감적 대화와 지지: 연구 참여자들이 탈퇴한 후 주변 사람들의 공감적 대화와 지지는 참여자들의 에스 체험으로 인한 상처 치유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가족들과의 공감적 대화와 지지는 파괴된 가족 관계를 회복시켜주었을 뿐 아니라 참여자들의 심리적 상처 치유에도 커다란 도움을 주어 ‘가족들 간의 공감적 대화와 지지를 통한 파괴된 가족 관계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 “가족들의 도움은 가장 큰 게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꾸준히 계속 표현해 주는 것들이 저한테는 가장 큰 도움이었고요”(연구 참여자 7). 그리고 참여자들은 ‘탈퇴한 이들과의 공감적 대화와 만남 안에서의 지지와 치유’는 참여자들의 회복을 돕는 중요 요소 중 하나이다. 참여자들은 가족에게도 말 못하는 것들을 이들과 나누며 깊은 이해와 지지를 받는다. “서로 같은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으니깐 그것에 대해서 얘기도 되게 많이 하게 되면서 감정적인 부분이 해소되는 것이 있었어요”(연구 참여자 4).

그리고 참여자들 주변의 신부들은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당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도움을 주어 참여자들은 ‘신부들의 조언과 지지를 통한 치유’를 경험한다. “신부님이랑 상담한 거는 약간 뭔가 정리가 안 되고 그랬던 거랑 인도 열매에 대한 그런 마음들 그런 게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6). 이상의 내용들은 가족과 탈퇴자들과 신부들의 ‘공감적 대화와 지지’를 드러내 주고 있기에 연구자들은 ‘공감적 대화와 지지’로 범주화하였다.

⑨ 회복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심리적 상처 치유와 올바른 신앙 확립: 연구 참여자들은 탈퇴 후 회복 교육을 4개월 정도 받았다. 회복 교육은 성경, 교리, 철학 등 신앙 전반에 대한 교육과 집단 상담 그리고 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참여자들은 회복 교육 안에서 심리 상담과 피정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며 자신의 상처와 가족 간의 상처를 치유 받는 ‘회복 교육 안에서의 자기 성찰과 심리적 상처 치유’ 체험을 한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잘못된 신앙을 수정하고 올바른 신앙을 확립해 나가면서 점차 주체적인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회복 교육을 통한 올바른 신앙 확립과 주체적 신앙생활’을 경험한다. “회복 교육을 통해서 진짜 하느님이 그런 분이 아니셨구나. 사랑의 하느님이 맞는 거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끼면서 굉장히 좀 편안해졌어요”(연구 참여자 7). 이상의 내용들은 연구 참여자들이 회복 교육 안에서 경험했었던 내용들로 연구자들은 ‘회복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올바른 신앙 확립과 심리적 상처 치유’로 범주화하였다.

⑩ 취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연구 참여자들이 탈퇴 후 가장 먼저 걱정한 것은 취직에 대한 것이었다. “에스가 진실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한 생각이 이제 난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이런 게 가장 먼저였어요”(연구 참여자 9). 그래서 참여자들은 먼저 학점을 복구하는 등의 ‘학업 단절에 대한 뒷수습을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간다. 그리고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오기 위한 취직 준비’를 한다. “우선은 공백을 메꾸려고 엄청 노력했던 것 같

아요. 2-3년 공백이 있다 보니까. 취준생 학원 열심히 다니고”(연구 참여자 5). 이상의 내용들은 연구 참여자들이 탈퇴 후에 한 취직을 위한 노력들이기에 연구자들은 ‘취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범주화하였다.

⑪ 가족 관계 회복 노력: 연구 참여자들은 에스 생활로 인해 무너진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서로 간의 상처로 인해 ‘무너진 가족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며, ‘상처 치유를 위한 가족과의 적극적 대화 시도’를 하였다. “가족들이랑 용기 내서 소통하고 많이 극복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확실히 옛날보다는 좀 에스 얘기하는 게 많이 자연스러워졌어요”(연구 참여자 1). 이상의 연구 참여자들의 노력들을 연구자들은 ‘가족 관계 회복 노력’으로 범주화하였다.

⑫ 인간관계 안에서의 어려움 극복 노력: 연구 참여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안겨 주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이다. 참여자들은 ‘인간관계 뒷수습을 위한 노력’을 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제가 오픈 전도 초반까지 있었기 때문에 ‘나 에스야’라고 얘기하고 다닌 것들을 수습하는 게 좀 어려웠었는데, ‘나 이제 에스에서 나왔고,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게 수습인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1). 또 참여자들은 ‘사회적 낙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성당에 사실 제가 에스 다녀왔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큰일도 아닌데, 그때는 엄청 그런 거에 예민한 상태고 그랬어요. ‘내가 갔다 왔는데 뭐 어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극복하려고 했어요”(연구 참여자 8). 이상의 연구 참여자들이 한 노력을 연구자들은 ‘인간관계 안에서의 어려움 극복 노력’으로 범주화하였다.

⑬ 신앙생활 회복 노력: 연구 참여자들은 에스로 인한 신앙생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정신적, 체력적 소진 등으로 인해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기 어려워한다. “거기서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고

해도 예배 이런 거 못 지키면 되게 사람을 진짜 몰거든요. 나는 완전 진짜 죄인이고 죽어야 되고. 물론 성당에서 말하는 하느님은 그런 무서우신 분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때 쫓리는 그런 게 너무 싫어요”(연구 참여자 4). 그럼에도 참여자들은 ‘부정적 신앙생활에 대한 체험을 딛고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의 조화를 위한 노력’을 한다. 그래서 ‘신앙생활 회복을 위한 영성 프로그램 참여’를 한다. “신앙 안에서 뭔가 생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OO(가톨릭 청년 영성 센터)에서 교육도 받고 일반적인 가톨릭 안에서의 모임도 나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5). 연구자들은 이상의 연구 참여자들의 노력들을 ‘신앙생활 회복 노력’으로 범주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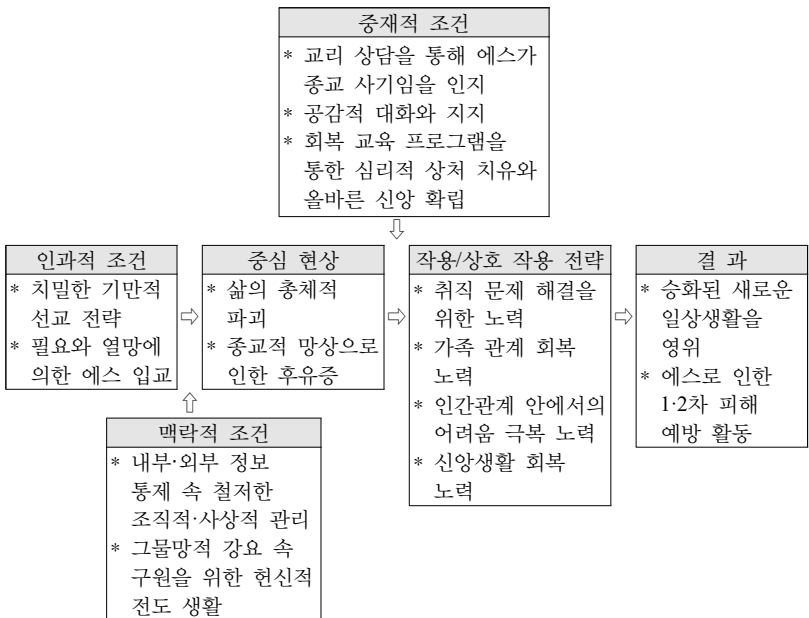
⑭ 승화된 새로운 일상생활을 영위: 이러한 연구 참여자들의 노력과 주변에서의 지지와 도움은 참여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에스 체험과 탈퇴 과정에 대한 수용과 승화’의 경험을 하게 해 준다. 참여자들은 부정적인 에스 체험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였고, 이 체험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한다. “근데 제가 에스에 갔기 때문에(가족 내) 종교 문제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 됐던 것 같아요. ... 에스 생활과 탈퇴 과정 또한 하느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더 마음이 편안했거든요”(연구 참여자 3). 그리고 참여자들은 나, 가족, 이웃, 하느님과 ‘파괴된 관계들의 회복’을 한다. “회복은 관계의 회복인 것 같아요. 나 스스로 나로 이해해 주는 나에 대한 관계, 하느님과 관계, 또 사람들하고 그런 관계”(연구 참여자 3). 그리고 참여자들은 ‘변화된 새로운 가치관에 따른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제 가치관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제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의식적으로라도 베풀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1). 그리고 참여자들은 ‘올바른 신앙생활 안에서 누리는 평화와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회복을 통해서 하느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생활할 때 누군가 미운 마음이 들다가도

저 사람 미워하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더 좋게 봐 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연구 참여자 7). 참여자들이 회복 과정을 통해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삶의 내용들을 연구자들은 ‘승화된 새로운 일상생활을 영위’로 범주화하였다.

⑮ 에스로 인한 1·2차 피해 예방 활동: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탈퇴 후에 ‘반에스 활동을 통한 에스인들의 탈퇴 돕기’를 하여 자신이 알고 지내던 에스인의 탈퇴를 구체적으로 돕거나 에스인들의 탈퇴를 돕기 위한 반에스 카페 활동을 하였다. 참여자들은 에스인들에게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에스에서의 탈퇴 요청’을 하며 주체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다. “좀 누구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나를 위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느님도 바라시는 거다”(연구 참여자 5). 그리고 ‘에스로 인한 피해자들의 회복과 피해 예방을 위한 교회 사목을 위한 제언’을 하였는데, 에스로 인한 피해 예방과 구제 및 회복 활동뿐 아니라 교회 사목에 있어서 변화되어야 할 부분도 말해 주었다. 이것은 에스로 인한 피해 예방 활동이기도 할 것이다. “에스는 진짜 어떻게든 구역원들한테 하나라도 말씀을 더 들려주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거든요. 약간 그런 부족함 ... 너무 개개인의 신앙하고 교회랑 약간 따로 간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저는”(연구 참여자 8). 참여자들은 ‘사이비 종교 집단에 의한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국가적 활동 요청’도 하였다. “법제화. 법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나라에서 제한을 좀 더 많이 걸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자유라고 너무 내비두는 것도 크잖아요”(연구 참여자 4). 연구 참여자들의 이상의 활동과 발언들을 연구자들은 ‘에스로 인한 1·2차 피해 예방 활동’으로 범주화하였다.

## 2. 축 코딩(axial coding)

축 코딩은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심 현상,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 작용 전략, 결과를 포함한 코딩 패러다임을 이용하여 범주들을 연결하는 과정이다.<sup>54)</sup> ‘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범주들을 속성과 차원의 수준에서 연결시키면서 한 범주의 축을 중심으로 코딩하기 때문이다. 패러다임은 분석가들이 과정과 구조를 통합하기 위해 고안된 분석 도구인데, 이 단계에서 패러다임에 따라 범주를 구성하여 현상에 대한 더 자세하고 완벽한 설명을 하게 된다.<sup>55)</sup> 앞의 15개의 범주를 패러다임에 따라 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탈퇴 후 회복 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54)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1990), 96-97 참조.

55)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1998<sup>2</sup>), 123-124 참조.

①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s): 본 연구에서 인과적 조건은 ‘치밀한 기만적 선교 전략’과 ‘필요와 열망에 의한 에스 입교’로 나타났다. 이 두 가지 범주는 중심 현상에 원인을 제공하는 요소들이다.

②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s): 본 연구에서 맥락적 조건은 ‘내부·외부 정보 통제 속 철저한 조직적·사상적 관리’와 ‘그물망적 강요 속 구원을 위한 헌신적 전도 생활’로 나타났다. 이 두 범주는 인과적 조건에서 기인하며, 작용/상호 작용을 통해 반응해야 할 상황이나 문제를 만들어내는 특수한 조건들로서 중심 현상의 특성들이다.

③ 중심 현상(central phenomena): 본 연구에서 중심 현상은 ‘삶의 총체적 파괴’와 ‘종교적 망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나타났다. 이 두 범주는 관리되고 다루어져야 할 중심적인 사건이자 현상이다.

④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s): 본 연구에서 중재적 조건은 ‘교리 상담을 통해 에스가 종교 사기임을 인지’, ‘공감적 대화와 지지’, ‘회복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심리적 상처 치유와 올바른 신앙 확립’으로 나타났다. 이 세 범주들은 특정한 맥락 안에서 중심 현상에 대한 작용/상호 작용 전략을 촉진하는 구조적 조건이다.

⑤ 작용/상호 작용 전략(action/interaction strategies): 본 연구에서 작용/상호 작용 전략은 ‘취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가족 관계 회복 노력’, ‘인간관계 안에서의 어려움 극복 노력’, ‘신앙생활 회복 노력’으로 나타났다. 이 네 범주는 일련의 인지된 상황이나 상태 아래에 있는 중심 현상을 다루거나 대처하기 위한 전략이다.

⑥ 결과(consequences): 본 연구에서 결과는 ‘승화된 새로운 일상 생활을 영위’와 ‘에스로 인한 1·2차 피해 예방 활동’으로 나타났다. 이 두 범주는 작용/상호 작용의 결과이다.<sup>56)</sup>

56) 참조: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1990), 96-107;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1998<sup>2</sup>), 127-135.

### 3.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

#### 1) 이야기 윤곽 전개

선택 코딩은 핵심 범주를 선택하는 과정으로서 이것을 다른 범주들과 체계적으로 연결한다. 모든 범주들은 핵심 범주로 통합된다.<sup>57)</sup> 이로써 연구 과정에서 수행된 모든 해석 작업이 통합된다.<sup>58)</sup> 핵심 범주를 선택하는 6가지 기준<sup>59)</sup>에 따라 본 연구자들은 ‘젯더미 위에서 승화된 새로운 일상을 건설해 나가기’를 핵심 범주로 하였다.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연구 참여자들은 에스와 그 선교 방식에 대한 무지 속에서 에스의 치밀한 사전 전도 계획에 따른 기만적 접근에 의해 복음방 성경 공부를 시작한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사랑 폭탄’에 의해 마음이 열린 참여자들은 본격적 성경 공부인 센터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외부 정보 차단에 의한 자기 폐쇄와 기만적 센터 교육에 의해 에스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며 입교하게 된다. 이것은 에스가 참여자들의 필요와 열망을 이용하여 성경 공부를 하게 하여 입교하게 된 것이다. 입교 후에 참여자들은 이탈자 방지를 위한 철저한 내부·외부 정보 통제와 조직적·사상적 관리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참여자들의 인간관계뿐 아니라 생각을 에스의 것들로만 채워서 종교적 망상에 빠지게 한다. 에스는 압박한 조건부 종말론적 분위기 속에서 참여자들에게 협소한 구원관을 가르치며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헌신적인 전도 생활을 강요한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헌신적인 전도 생활로 인해 소진되어 나갔지만, 자신과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모든 어려움을 감내해 나간다.

이러한 헌신적인 에스 생활을 함으로써 참여자들의 가족생활이 파괴된다. 헌신적인 에스 생활로 말미암아 참여자들의 사회생활은 파괴되고, 취업 문제에서도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그리고 종교적 망상이 깨진 뒤에는 충격과 혼동 그리고 감정적 소용돌이 속에

57)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1990), 116 참조.

5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1990), 142 참조.

59)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1998<sup>2</sup>), 147 참조.

서 자기가 붕괴된다. 참여자들은 부정적 에스 신앙생활 체험으로 인해 하느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인간관계의 뒷수습으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된다. 그리고 가족 간의 깨진 관계 회복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낙인처럼 남은 에스 생활과 사고로 인해 고통받게 된다.

참여자들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었던 에스에서의 탈퇴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은 가족들이었다. 가족들은 참여자들이 에스에 빠진 것을 알게 된 후 교리 상담을 계획한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가족들과의 대립 속에서 교리 상담에 대한 힘겨운 수용을 한다. 교리 상담을 통해 에스가 종교 사기임을 알게 된 후에는 참된 신앙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된다. 탈퇴 후에는 가족들의 공감적 대화와 지지를 통해 파괴된 가족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받게 된다. 그리고 먼저 혹은 함께, 에스에서 탈퇴한 이들은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 있었던 참여자들에게 공감적 대화와 만남 안에서 지지해 주었고,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치유를 체험한다. 그리고 참여자들에게 신부들의 조언과 지지는 치유와 회복에 있어서 또 다른 도움이 된다. 참여자들은 탈퇴 후 참여하게 된 회복 교육 안에서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 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은 심리적 상처가 치유되고 올바른 신앙이 확립되고 주체적인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경험을 한다. 참여자들은 에스 생활로 인한 공백과 퇴행을 복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이들은 학업 단절을 위한 뒷수습을 위한 노력을 하며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오기 위한 취직 준비를 한다. 참여자들은 무너진 가족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과 가족과의 적극적인 대화 시도를 통해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인간관계 뒷수습을 위한 노력과 사회적 낙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며 인간관계 안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한다. 그리고 부정적 신앙생활에 대한 체험을 딛고 신앙생활 회복을 위한 영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의 조화를 위한 노력을 하며 신앙생활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다.

이로써 참여자들은 지울 수 없는 에스에 대한 체험과 탈퇴 과정

에 대한 수용과 승화를 한다. 그리고 자신, 가족, 이웃, 하느님과의 파괴된 관계들을 회복하였고 변화된 새로운 가치관에 따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참여자들은 올바른 신앙생활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승화된 새로운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간다. 나아가 참여자들은 반에스 활동을 통해 에스인들의 탈퇴를 도우며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에스에서의 탈퇴를 요청한다. 그리고 에스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회 사목을 위한 제언과 사이버 종교 집단에 의한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국가적 활동을 요청하며 에스로 인한 1·2차 피해 예방 활동을 해 나간다.

모든 참여자들은 탈퇴 후에 헌신적 에스 생활로 인한 ‘젓더미’ 체험을 하였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도중 에스의 철저한 내부·외부 정보 통제와 철저한 조직적·사상적 관리, 그리고 그물망적 강요 속 헌신적 전도 생활로 인하여 가족과 학교 그리고 사회생활이 파괴되었을 뿐 아니라 자신조차 소진되어 버린 ‘젓더미’ 상태를 체험하였다. 참여자들은 이 젓더미 위에 승화된 새로운 일상을 건설해 나갔다. 먼저 이들은 자신과 자신의 체험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지지 속에서 현실 재적응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가운데 새로운 자신으로 태어나 승화된 새로운 일상을 건설해 나갔다.

## 2) 유형 분석

축 코딩 중에 범주의 속성과 차원 사이에 반복되는 관계, 곧 ‘패턴’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는데, 선택 코딩을 하면서 개념적 관련망 중 느슨하거나 꼬인 부분을 다듬으며 패턴을 식별하고 이 패턴에 따라 자료들을 정리한다. 이것이 이론의 특별성을 제공하는데, 중심 현상의 속성을 알면 다양한 조합을 추론할 수 있다. 자신의 이론이 자료에서 검증되면, 곧 사례가 이론에 맞으면 이론이 구축된다(grounding).<sup>60)</sup>

6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1990), 130-134 참조.

〈표 3〉 새터 건설 유형 분석

|            | 범 주                                 | 퇴보형    | 고뇌형    | 현실 적응형 | 초월형    |
|------------|-------------------------------------|--------|--------|--------|--------|
| 인과적 조건     | 치밀한 기만적 선교 전략                       | 고차원    | 고차원    | 고차원    | 고차원    |
|            | 필요와 열망에 의한 에스 입교                    | 강함     | 강함     | 강함     | 강함     |
| 맥락적 조건     | 내부·외부 정보 통제 속 철저한 조직적·사상적 관리        | 강력     | 강력     | 강력     | 강력     |
|            | 그물망적 강요 속 구원을 위한 헌신적 전도 생활          | 적극적    | 적극적    | 적극적    | 적극적    |
| 중심 현상      | 삶의 총체적 파괴                           | 많고 심각함 | 적고 미미함 | 많고 심각함 | 적고 미미함 |
|            | 종교적 망상으로 인한 후유증                     | 많고 심각함 | 많고 심각함 | 적고 미미함 | 적고 미미함 |
| 중재적 조건     | 교리 상담을 통해 에스가 종교 사기임을 인지            | 적고 얕음  | 많고 깊음  | 적고 얕음  | 많고 깊음  |
|            | 공감적 대화와 지지                          | 적고 소극적 | 적고 소극적 | 많고 적극적 | 많고 적극적 |
|            | 회복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심리적 상처 치유와 올바른 신앙 확립 | 미미     | 미미     | 온전     | 온전     |
| 작용/상호작용 전략 | 취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적고 소극적 | 많고 적극적 | 적고 소극적 | 많고 적극적 |
|            | 가족 관계 회복 노력                         | 소극적    | 소극적    | 적극적    | 적극적    |
|            | 인간관계 안에서의 어려움 극복 노력                 | 소극적    | 소극적    | 적극적    | 적극적    |
|            | 신앙생활 회복 노력                          | 소수 소극적 | 개인차    | 소수 소극적 | 다양 적극적 |
| 결과         | 승화된 새로운 일상생활을 영위                    | 불완전    | 불완전    | 불완전    | 완전     |
|            | 에스로 인한 1·2차 피해 예방 활동                | 소수 소극적 | 소수 소극적 | 소수 소극적 | 다양 적극적 |

① 퇴보형: 퇴보형은 헌신적 에스 신앙생활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 그래서 사회 재적응의 중요 요소 중에 하나인 취직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탈퇴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회복의 중요 요소 중에 하나인 현실에서 돌아갈 자리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심리적 상처 치유에 있어서 중요 지지 집단인 가족들과의 공감적 대화와 지지도 적기에 과거의 상처에서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다.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에스에서 주입한 두려운 하느님에 갇혀 있고, 에스 신앙생활로 인한 신앙생활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다시 신앙생

활을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에스 입교 전에는 신앙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았던 연구 참여자 9가 퇴보형에 속한다고 판단된다. “제가 에스에 가게 된 게 ‘신을 믿고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이 나에게 보여준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고 따라갔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였다. 믿은 결과가 사기다”(연구 참여자 9).

② 고뇌형: 고뇌형은 헌신적 에스 생활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아 사회 재적응 중요 요소 중에 하나인 취직에 있어 큰 어려움은 없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소수 소극적’에서 ‘다양 적극적’까지 개인차가 있는데, 무종교였던 이는 다시 무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나 신앙이 있었던 이는 신앙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중요 지지 집단인 가족들과의 공감적 대화와 지지가 적어 마음속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연구 참여자 4와 5가 고뇌형에 속한다고 판단된다. “그 친구(인도 열매)만 생각하면 제가 너무 … 이걸 평생 안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해요, 그 친구는”(연구 참여자 4).

③ 현실적응형: 현실적응형은 에스 신앙생활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 그래서 사회 재적응 중요 요소 중에 하나인 취직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심리적 상처에 있어서 중요 지지 집단인 가족들과의 공감적 대화와 지지가 많아 과거의 상처가 회복되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두려운 하느님에 간혀 있지 않으나 헌신적 에스 신앙생활로 인한 소진으로 인하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들은 에스로 인한 탈퇴 후의 상황들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다. 연구 참여자 6이 현실적응형에 속한다고 판단된다.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사회에 잘 적응하는 거 같아요. 옛날에 교회에 에스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 이런 걸 바랐었는데, 지금 웬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게 좀 없어진 거 같아요”(연구 참여자 6).

④ 초월형: 초월형은 에스 신앙생활로 인한 피해가 심하지 않아 사회 재적응 중요 요소 중에 하나인 취직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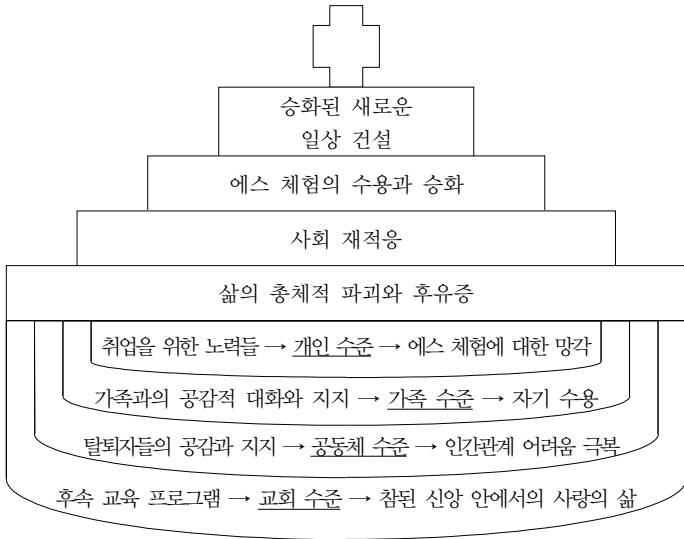
며, 심리적 상처에 있어서 중요 지지 집단인 가족들과의 공감적 대화와 지지가 많아 과거의 상처로부터 회복되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두려운 하느님에서 사랑의 하느님으로의 신관의 변화가 생겼으며, 신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이들은 회복 과정을 통해 에스 체험과 그 이후의 상황들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여 에스 체험을 수용 및 승화시켜 자신을 초월해 나갔다. 연구 참여자 1, 2, 3, 7, 8이 초월형에 속한다고 판단된다. “상처를 덮어두지 않고 봤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그냥 외면하고 안보고 그냥 신앙생활을 안 하고 이랬으면 거기에 대해서 더 생각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채로 남아 있는 거죠. 하느님은 악한 것도 선하게 쓰신다니까요”(연구 참여자 8).

#### 4. 조건/결과 매트릭스(conditional/consequential matrix)

매트릭스는 분석자가 거시적 조건/결과 및 미시적 조건/결과 간의, 그리고 이것들과 과정 간에 가지는 관계에 대해 생각하도록 자극하는 분석 도구이다. 매트릭스는 연구 중인 현상과 관련된 광범위한 조건들과 결과들에 대해서 숙고하도록 해 주는 것으로 작용/상호 작용들과 그 결과들의 관계를 추적한다. 매트릭스는 조건들과 결과들의 수준을 구분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근거 이론을 덜 통합적이고 덜 정교한 질적 연구와 구분해 준다.<sup>61)</sup> 매트릭스는 체계적·논리적·통합적 설명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현상에 대한 더 완벽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할 수 있다.<sup>62)</sup>

61) 매트릭스의 목적에 대해서는 『근거이론의 단계』, 173 참조.

62) 참조: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1998<sup>2</sup>), 181-191;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1990), 158-159.



[그림 2] 잿더미 위에서 승화된 새로운 일상을 건설해 나가기 상황 모형

① 개인 수준: 연구 참여자들은 교리 상담을 통해 에스가 거짓됨을 알고 심각한 충격과 혼동에 빠진다. 자신에게 어떤 감정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감정적 소용돌이 속에서 헌신적 에스 생활로 인한 공백 앞에서 당황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공백을 채우기 위해 학업 성적을 복구하고 취업을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간다.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이를 피하지 않고 직면하여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에스에서의 부정적인 체험들이 자연스럽게 망각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② 가족 수준: 연구 참여자들은 탈퇴 후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가족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해 나간다. 공감적 대화 안에서 질책하기 보다는 무조건 수용해 주고 지지해 주는 가족들의 사랑에 대한 체험은 참여자들이 자신을 비난하기보다 수용하는 내적인 힘을 가져다 준다.

③ 공동체 수준: 연구 참여자들은 참여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탈퇴자들과의 만남과 대화 안에서 위로와 용기를 받는다. 이들은 참여자들에게 인간관계에서의 공백을 채워주며 에스 생활로 인한 인간관계 뒷수습 문제에 대한 조언과 지지를 해 준다.

④ 교회 수준: 참여자들은 회복 교육을 받으면서 올바른 신앙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간다. 회복 교육을 통해서 배운 사랑의 하느님에 대한 믿음은 참여자들이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법을 알려준다. 하느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과 관계 안에서 내적인 평화를 얻게 된 참여자들은 참된 신앙 안에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 V. 나가는 말: 논의 및 사목적 제언

이상의 논의와 연구 결과에서 그동안 많이 주장되어 온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당사자에 대한 전적인 통제를 낳는다는 ‘세뇌 이론’은 신종교인들의 신종교 운동 참여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심층 인터뷰 중 한 연구 참여자는 이렇게 말한다. “내일이 시험인데 전도사님이 ‘니 시험 성적 버리고 하느님한테 믿고 의지하면 점수가 더 잘 나온다’ 이렇게 설교를 계속했었고. 말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 상황에서는”(연구 참여자 5). 그리고 성공회 신부 레오 부스(Leo Booth) 이래 ‘세뇌 이론’ 다음으로 많이 주장되는 ‘종교 중독 이론’도 신종교 운동 참여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부족해 보인다. 이들에게 있어서 ‘현실 회피 수단’으로서 종교 중독이란 ‘참된 봉헌의 대상인 하느님을 대체한 종교적인 것들에 대한 현실 도피와 기분 전환을 위한 병리적인 강한 애착 관계를 가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sup>63)</sup> 하지만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다양한 유형의 중독의 보

63) 참조: Leo Booth, *When God Becomes a Drug: Breaking the Chains of Religious Addiction & Abuse*, Los Angeles: Jeremy P. Tarcher, 1991, 37-38; Archibald D. Hart, *Healing Life's Hidden Addictions: Overcoming the Closet Compulsions that Waste Your Time and Control Your Life*, Michigan: Servant Publications, 1990,

편적 특성을 보았을 때 중독에 이르는 과정이 연구 참여자들에게 보이지 않으며, 종교 중독 이론의 ‘현실 회피’라는 개념도 일반적인 중독의 ‘현실 회피’와 차이가 있다.<sup>64)</sup> 일부 에스인들은 기분 전환을 위해 현실 회피를 하고 있기보다는 주입된 교리에 의한 편협한 구원관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물망적 강요와 집단 분위기에 의해 현실과 유리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학교 공부를 좀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에스에는 되게 소홀히 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 학교에 계속 찾아오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하고 1년 휴학하고 에스에서 1년 동안 열심히 활동했어요”(연구 참여자 9). 세뇌 이론이 신종교 운동 참여 이유를 신종교 운동에게 있다고 본다면, 종교 중독 이론은 그 반대로 개인에게 있다고 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쪽만을 바라보는 관점은 신종교 운동 탈퇴자들에 대한 오해와 낙인으로 발전할 수 있다. 신종교 운동 참여 이유는 상호적인 것으로 에스의 ‘치밀한 기만적 선교 전략’<sup>65)</sup>에

---

129-132; Patricia Anne Vanderheyden, “Religious Addiction: The Subtle Destruction of the Soul”, *Pastoral Psychology* 47/4, 1999, 294; 스티븐 아터번·잭 펠튼, 『해로운 신앙: 종교 중독과 영적 학대의 치유』, 문희경 역, 그리심, 2013, 113-120; 정연득, 앞의 책, 51-52.

- 64) 김미숙, “중독의 특성에 대한 국내 질적 연구의 내용분석: 공간적·관계적·시간적 차원”, 『환경철학』 28, 2019, 96-119 참조.
- 65) 에스의 선교 전략은 연구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듯이 ‘종교 사기’로 보인다. 한 연구 참여자는 목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에스인들인 소위 ‘위장 교회’에서 활동했었다. “그니까 에스에서 선교 교회라고 부르는데, 그냥 일반 교회인 척 위장을 해놓은 교회를 만들었어요. 장로교 교회 간판을 달고 각자의 역할이 주어지는데, 저는 거기 다니는 교인 중에 하나인 걸로 해서 일반 교회에서 하는 것들을 그 안에서 하면서 전단지도 주고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역할을 했어요”(연구 참여자 7). 미국에서 컬트와 관련된 법정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들이 사기와 기만을 당했다고 고소한 것이었는데, ‘사이언톨로지’(Scientology)와 ‘하레 크리슈나’(Hare Krishna)는 패소했다.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이것이 종교 영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무관심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어떤 단체가 논란이 되거나 의심스러운 관행들로 비판을 받는다면, 국가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정체를 숨기고 사람들을 개종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면, 이것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참조: Walter Debold, “The New Cults: a Threat to Unity and Authentic Humanity”, *Journal of Dharma* 12/1, 1987, 65; Jean-François Mayer, 앞의 책, 428.

의해 각자의 ‘필요와 열망에 의한 에스 입교’를 하게 되는 것이다.

사례 개념화란 내담자의 상황과 부정응적 패턴을 이해하고 설명하며, 치료를 안내하고 집중하게 하고, 도전과 방해물을 예상하며, 성공적인 종결을 준비하기 위한 내담자의 정보를 얻고 구조화하기 위한 방법이자 치료 전략이다. ‘증거 기반 실천의 핵심’인 사례 개념화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특정 이론을 기반으로 한 많은 사례 개념화 모델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내담자의 종교 및 영성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sup>66)</sup> 종교 및 영성적 사례 개념화의 목표는 내담자의 부적응적 패턴<sup>67)</sup>뿐만 아니라 보다 적응적인 패턴을 인식하게 하여 내담자에게 더욱 효과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다.<sup>68)</sup> 신종교 운동 탈퇴자들의 회복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례 개념화가 필요하다. 이들의 사례 개념화에는 ‘종교적 망상’을 바탕으로 개개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sup>69)</sup> 신종교 운동 경험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하다.

연구 참여자들은 결정적으로 에스가 ‘종교 사기’임을 인지하여 탈퇴를 결심한다. 이것은 교리 상담 때의 객관적인 자료와 에스 교리의 모순, 그리고 성경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알게 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먼저 에스 탈퇴자들의 회복을 위해서는 에스 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이것이 왜 잘못된 것이며, 참다운 신

66) George Stoupas, Vassilia Binensztok and Len Sperry, 앞의 책, 64-65 참조.

67) 인지행동치료적 관점에서 부적응적 패턴이란 왜곡된 정보 수집에 의한 ‘자동적 사고 → 감정 → 행동’의 역기능적 순환이라고 할 수 있다. Judith S. Beck, 『인지행동 치료: 이론과 실제』, 최영희 외 3인 역, 하나醫學社, 2017, 49-67 참조.

68) George Stoupas, Vassilia Binensztok and Len Sperry, 앞의 책, 71.

69) 1980년대 중반부터는 컬트 문제에 대해서 심리학자나 정신의학자 등과 같은 전문가 집단이 참여한다. 이들은 연구를 통해서 신종교인들이 더이상 ‘준비’나 ‘세뇌된 로봇’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지만 신종교 운동 탈퇴자들이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ost-traumatic stress syndrome), ‘해리 상태’(dissociative states), ‘컬트 인격 증후군’(cult-imposed personality syndrome)에 의해서 고통 받고 있음을 발견한다. 하지만 종교적 문제를 순전히 의학적인 문제로 만드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Anson Shupe, David G. Bromley, “The Modern North America Anti-Cult Movement 1971-1991: A Twenty-Year Retrospective”, 11-16 참조.

양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바탕으로 알려줄 수 있는 사목자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이 에스와 에스 교리에 대한 실체를 인지한 후에는 혼란과 감정적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다. 이때 이들에게 공감적 대화와 지지를 해 줄 수 있는 지지 집단, 특히 가족들의 도움이 중요하다. 가족들은 교리 상담 과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탈퇴자들, 사목자들과 함께 자신을 수용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정신적 보금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선 사목 현장에서 신종교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혹은 신종교 운동에서 탈퇴한 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들 간의 신뢰 파괴와 힘겨운 교리 상담 진행으로 인한 상처가 있다. 그렇기에 가족들의 회복을 위한 도움도 필요하다. 그리고 에스 탈퇴자들에게 있어서 심리 상담과 피정은 자신의 혼란한 내면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솔직히 표현하는 과정 중에 감정이 정리되고 올바른 방향성을 찾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사목자의 관심과 공감적 대화 안에서 이들이 에스 체험과 탈퇴 후의 과정들을 신앙 안에서 바라보고 재해석하는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스 체험으로 지친 이들을 편견 없는 눈, 특히 관심과 사랑이 넘치는 수용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의무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사랑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탕을 둔 관계적 신앙생활에 대한 지도가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이들에게 있어서 사회 재적응을 위한 핵심 요소로 직업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직업 문제가 해결될 때 부정적 에스 체험으로부터 빨리 벗어나 현실에 집중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교구 내 사회복지국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도움들을 통해 에스 탈퇴자들은 자기 자신, 가족, 세상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일치에 이르며 자기 자신을 초월해 새로운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sup>70)</sup>

70) 신종교 운동 에스 탈퇴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져다주는 것은 국가 및 사회적 무관심이다. 힌쇼(Stephen P. Hinshaw)는 미국의 경우 외래 정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신종교 운동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가톨릭 교회는 자신이 돌보아야 할 양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사목 활동에 있어서 부족한 점을 살펴보아야 한다.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필요와 열망에 대한 사목적 무관심은 신종교 운동이 자리 잡고 커나가는 옥토가 된다. 교회는 교리 교육적 측면에서 신자들에게 올바른 신앙에 대한 교육과 함께 가톨릭 신자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을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영적 목마름에 대한 신자들의 열망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 일상생활 안에서 영적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을 고민하며 개발해 나가야 한다. 또한 사목자들은 피라미드 꼭짓점에서 내려와 신자들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며 동반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신자들의 현실 문제와 무관한 지식적 사목은 결국 다시 교회로 돌아온 탈퇴자들이 또다시 신앙생활 안에서 소진되어 나가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는 이들의 교회 재정착을 위해 이들을 편견 없이 바라보며 따뜻이 맞이하며 지지해 주는 친교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신종교 운동 에스 탈퇴자들의 회복을 위한 사목적 제언을 하기 위한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은 회복 교육을 받은 이들이었다. 에스 탈퇴자들 중에는 다양한 이유로 가족들의 도움 없이 에스에서 탈퇴한 이들도 있으며, 2세대들도 있다. 이들은 탈퇴 후 심리적 상태, 그리고 처한 상황과 문제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이들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그리고 신종교 운동 에스 탈퇴자들의 상황을 각 신종교 운동마다 각자의 교리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신종교 운동 탈퇴자들에게 적용하기 어

---

사람과 국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 대한 구분은 ① 상태의 지속성, ② 생물학적 치료만 고려됨, ③ 위험한 염세주의 분위기(aura)에 대한 견해와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왔다고 한다. 신종교 운동 중 가정과 사회를 등지게 하는 ‘위험한 염세주의 분위기’가 있는 곳들이 있다. 이러한 신종교 운동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논의와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Stephen P. Hinshaw, *The Mark of Shame: Stigma of Mental Illness and an Agenda for Chan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83 참조.

렵기도 하다. 그렇기에 향후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 및 완성해 나갈 연구들이 필요해 보인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사목뿐 아니라 신학 연구의 기초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신학이 사변성을 극복하고 구체적인 현실 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이방인들의 갈릴래아로 가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마태 26,32 참조). 교회가 부활하신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영적으로 쇄신해 나갈 수 있는 곳은 이러한 ‘사목 사각지대’이다. 우리는 그곳에 계신 주님을 모른다고 해서 안 된다. 비단 에스 탈퇴자들뿐 아니라 교회의 ‘사목 사각지대’를 향한 관심과 열정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가 더욱더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 줄 것이다(마태 5,13-16 참조).\*

\* 투 고 일: 2023. 3. 20  
수 정 일: 2023. 5. 23

심 사 일: 2023. 5. 8  
계재확정일: 2023. 6. 2

## 참 고 문 헌

- 강신유, 『에스 교도의 ‘이단경험과 탈퇴’ 과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평택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2010.
- 권향원, “근거이론의 수행방법에 대한 이해: 실천적 가이드라인과 이론적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2, 2016, 181-216.
- 기향금, 『이단현상에 대한 종교심리학적 고찰: 에스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2008.
- 김정은·최영진, “집단 내 심리적 학대경험과 외상사건충격 간의 관계에서 외상화된 자기체계의 매개효과 검증: 학대적인 종교집단 탈퇴자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3/5, 2022, 181-201.
- 김명수, 『에스에서 탈퇴한 20대 청년들의 심리변화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 김미숙, “중독의 특성에 대한 국내 질적 연구의 내용분석: 공간적·관계적·시간적 차원”, 『환경철학』 28, 2019, 96-125.
- 김원쟁, “이단신앙의 심리학”, 『대학과 선교』 12, 2007, 75-101.
- 김인숙, 『사회복지연구에서 질적방법과 분석』, 아산재단 연구총서 405, 집문당, 2016.
- 메이슨, 제니퍼, 『질적 연구방법론』, 김두섭 역, 나남출판, 1999.
- 반신환, “신흥종교집단의 개종과정과 상담”,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3/3, 2012, 153-174.
- 백소영·유영권, “신흥종교 이탈자를 위한 기독교상담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33/3, 2022, 139-172.
- 서면, 에드먼드·리드, 윌리엄,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의 이론과 활용』, 유태균·이선혜·서진환 역, 나남출판, 2003.
- 시사상식사전, “N포세대”,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45263&cid=43667&categoryId=43667>(검색일: 2023.3.3).
- 아터번, 스티븐·펠튼, 잭, 『해로운 신앙: 종교 중독과 영적 학대의 치유』, 문희경 역, 그리스심, 2013.
- 유애림, 『교회를 위협하는 기독교 이단에 대한 이해 및 목회상담적 대응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침례신학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 유연철, “기독교 이단 신흥종교에 경도(傾倒)된 성인진입기 세대의 종교중독 연구: 자기심리학 관점에서”, 『목회와 상담』 34, 2020, 171-205.
- 유영권, “사이비·이단 교주와 신도들의 심리이해: 목회상담적 제언”, 『신학과 실천』 13, 2007, 79-106.

- \_\_\_\_\_, “신흥종교에 빠진 내담자를 위한 상담 전략”,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3/1, 107-128.
- \_\_\_\_\_, “에스 이탈 청년들의 적응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74, 2021, 359-386.
- 윤택림,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연구 방법론』, 아르케, 2004.
- 이영숙, 『기독교청년의 기독교이단 탈퇴 경험연구』,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2021.
- 이정은, 『에스 신자들의 개종 요인에 관한 연구: 개종, 재개종 간증문에 나타난 교리적 내용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
- 이준민, 『보웬의 가족체계이론을 바탕으로 한 종교 중독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기독교대학원, 2018.
- 전우택, “신흥종교집단에 대한 정신의학적 이해”, 『精神病理學』 3/1, 1994, 23-33.
- 전형준, “이단자들의 심리이해와 목회상담학적 대책”, 『개혁논총』 30, 2014, 297-328.
- 정미숙, 『종교중독의 치료를 위한 기독교 상담』,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기독교상담대학원, 2011.
- 정연득, “종교중독에 대한 목회신학적 대응: 정신분석학과 몸의 신학의 관점에서”, 『신학과 실천』 26/2, 2011, 45-78.
- 최정은·김윤영,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과 기초자치단체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45, 2022, 157-185.
- 패짓, 데보라 K.,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 사회복지학 총서 40, 유태균 역, 나남출판, 2001.
- 허호익, “『격암유록』의 위조와 기독교 이단들의 종교혼합주의”, 『長神論壇』 36, 2009, 41-70.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2013<sup>5</sup>.
- Barker, Eileen, *The Making of a Moonie: Choice or Brainwashing?*, New York: Basil Blackwell, 1984.
- Beck, Judith S., 『인지행동치료: 이론과 실제』, 최영희 외 3인 역, 하나醫學社, 2017.
- Booth, Leo, *When God Becomes a Drug: Breaking the Chains of Religious Addiction & Abuse*, Los Angeles: Jeremy P. Tarcher, 1991.

- Chryssides, George D. / Wilkins, Margaret Z., eds., *A Reader in New Religious Movements*, London: Continuum, 2006.
- Cowan, Douglas E. / Bromley, David G., *Cults and New Religions: a brief history*, Oxford: Blackwell, 2008.
- Cowan, Douglas E., “Conversion to New Religious Movements”, *The Oxford Handbook of Religious Conversion*, eds. Rambo, Lewis R. / Farhadian, Charl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687-705.
- Dawson, Lorne L., *Comprehending Cults: The Sociology of New Religious Movemen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sup>2</sup>.
- Debold, Walter, “The New Cults: a Threat to Unity and Authentic Humanity”, *Journal of Dharma* 12/1, 1987, 63-70.
- Dinges, William D., “The Vatican Report on Sects, Cults and New religious movements”, *America* 155, 1986, 145-154.
- Glaser, Barney G. / Strauss, Anselm L.,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New York: Aldine Publishing Company, 1967.
- Hart, Archibald D., *Healing Life's Hidden Addictions: Overcoming the Closet Compulsions that Waste Your Time and Control Your Life*, Michigan: Servant Publications, 1990.
- Hinshaw, Stephen P., *The Mark of Shame: Stigma of Mental Illness and an Agenda for Chan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ICD-11 for Mortality and Morbidity Statistics, “Religious delusion”, <https://icd.who.int/browse11/1-m/en#/http://id.who.int/icd/entity/1284844079>(검색일: 2023.5.21).
- Lifton, Robert Jay, *Thought Reform and the Psychology of Totalism: A Study of 'Brainwashing' in China*,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9.
- Mayer, Jean-François, “New Approaches to the Study of New Religions in North America and Europe”, *New Approaches to the Study of Religion Volume 1: Regional, Critical, and Historical Approaches*, eds. Antes, Peter / Geertz, Armin W. / Warne, Randi R.,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4, 407-436.
- Melton, J. Gordon, “Perspective: Toward a Definition of ‘New Religion’”, *Nova Religio: The Journal of Alternative and Emergent Religions* 8/1, 2004, 73-87.
- PsychDB, “V Codes (DSM-5) & Z Codes (ICD-10)”, <https://www.psychd>

b.com/teaching/dsm-v-icd-z-codes(검색일: 2023.5.21).

- Rambo, Lewis R. / Farhadian, Charles, eds., *The Oxford Handbook of Religious Convers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 Richardson, James T., “A critique of ‘Brainwashing’ Claims about New Religious Movements”, *Cults in Context: Readings in the study of New Religious Movements*, ed. Dawson, Lorne L., New Jersey: Transaction Publishers, 2012, 217-227.
- Saliba, John A., “Official Catholic Responses to the New Religions”, *Anti-Cult Movements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eds. Shupe, Anson / Bromley, David G., New York: Garland, 1994, 199-219.
- \_\_\_\_\_, “Psychology and New Religious Movements”, *The Oxford Handbook of New Religious Movements* vol. II, eds. Lewis, James R. / Tøllefsen, Inga B.,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6<sup>2</sup>, 84-97.
- Secretariat for Promoting Christian Unity et al., “Vatican Report on Sects, Cults and New Religious Movements”, *Origins* 16/1, 1986, 1-10.
- Shupe, Anson / Bromley, David G., “Introduction: The Global Scale of Anti-Cultism”, *Anti-Cult Movements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eds. Shupe, Anson / Bromley, David G., New York: Garland, 1994, vii-xvi.
- \_\_\_\_\_, “The Modern North America Anti-Cult Movement 1971-1991: A Twenty-Year Retrospective”, *Anti-Cult Movements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eds. Shupe, Anson / Bromley, David G., New York: Garland, 1994, 3-31.
- Singer, Margaret Thaler, *Cults in our Midst: The Continuing Fight Against Their Hidden Menace*, San Francisco: Jossey-Bass, 2003.
- Stoupas, George / Binensztok, Vassilia / Sperry, Len, “Understanding the Spiritual Domain through Case Conceptualization”, *Spirituality and Religion in Counseling: Competency-Based Strategies for Ethical Practice*, eds. Gill, Carman S. / Freund, Robert R., New York: Routledge, 2018, 64-81.
- Strauss, Anselm / Corbin, Juliet, 『근거이론의 단계』, 신경림 역, 현문사, 2001.
- \_\_\_\_\_, 『근거이론』, 김미영 외 7인 역, 현문사, 2019.
- \_\_\_\_\_,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1990.
- \_\_\_\_\_,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1998<sup>2</sup>.

- \_\_\_\_\_,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2015<sup>4</sup>.
- Taylor, Kathleen, *Brainwashing: The Science of Thought Contro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7<sup>2</sup>.
- Vanderheyden, Patricia Anne, “Religious Addiction: The Subtle Destruction of the Soul”, *Pastoral Psychology* 47/4, 1999, 293-302.
- Zablocki, Benjamin, “Toward a Demystified and Disinterested Scientific Theory of Brainwashing”, *Misunderstanding Cults: Searching for Objectivity in a Controversial Field*, eds. Zablocki, Benjamin / Robbins, Thomas, Toronto, Buffalo, London: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01, 159-214.

---

## A Grounded Theory Study on the Experience and Recovery Process of those who left a New Religious Movements S after Exiting for Pastoral Advice

*Oh, Chang Ho  
Lee, Kyou S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pastoral suggestions for the recovery of those who have left the New Religious Movements S, which is currently achieving the most remarkable success among New Religious Movements. To this end, this study reviewed prior studies and found that most prior studies were based on ‘the brainwashing theory’.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brainwashing theory’ and proposes ‘religious delusion’ as an alternative point of view. The analysis framework of Strauss–Corbin’s grounded theory is used as a research method because this study aims to create grounding data for specific pastoral care. A total of 176 concepts, 48 subcategories and 15 categories were discovered as a result of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based on 1:1 in-depth interviews with 9 participants who voluntarily expressed their intention to participate in the study. Among the 15 categories, the Central Phenomena appeared as ‘total destruction of life’ and ‘after effects from religious delusion’, and I discovered that there was a ‘regression type’, ‘agony type’, ‘reality-adaptive type’ and a ‘transcendent type’ in the type of ‘building a new sublimated daily life on the ashes’. In conclusion, this study states that case conceptualizations of individuals based on ‘religious delusion’ is appropriate rather than ‘brainwashing theory’ or ‘religious addiction theory’ in the Church’s pastoral care for their journey toward restoration and unity of relationships

with themselves, their families, their neighbors and God. And based on this, this study remarks that She needs to give help in terms of religious, relational and social readjustment along with the family, an important support group. Furthermore, This study requests that the Catholic Church should endeavor to prevent damage to the sheep who needs her pastoral care through research on new religious movements, and by it, she needs to have a time of self-reflection on her pastoral deficiencies. As limitations of this study, it was said that it is challenging to apply the results of this study to those who have left new religious movements for various reasons other than the help of their families, especially the second generation, and that it is necessary to have more studies on those who have left other new religious movements. Nevertheless, this essay could be used as a basic source for a practical theology as well as a pastoral service.

\* **Key Words:** Recovery Methods of who left New Religious Movements S, Brainwashing Theory, Religious Delusion, Grounded Theory, New Ground Construction Types